

예수와 나의 만남

GGAC POLYARTS CENTER MAGAZINE

VOL. 172

2025. 02. 03

ggac.or.kr

GGAC
in 2025

교감交感

눈빛과 제스처, 손끝의 움직임에 따라

미묘하게 변주되는 강약과 템포를 맞추고 화음을 조율하며

세로로 향한 존경, 정중한 존중과 배려가 깃든 음악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들의 완벽한 힘이 비로소 빛을 발한다.

부드러운 유연함과 강렬한 힘이 교차하며

수만 가지 감정이 들숨과 날숨의 선율을 쌓아 올릴 때

경이랄하도니오케스트라의 마법 같은 앙상블이 완성된다.

지휘자와 연주 단원, 관객이 하모니를 이루는 길은 교감의 시간이 시작된다.







SPECIAL

06 View

2025 경기필하모닉, 눈부신 행보
2025년 시즌 발표회를 통해 밝는
올해 경기필하모닉의 행보

12 Theme

교향곡, 그리고 오라토리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
<어마테우스>의 모자르트 교향곡 스토리

16 Interview

후회 없이, 예술가의 최선
앞으로 11년도 지난 9년차임에 순간
최선을 다할 감성목 예술감독과의 인터뷰

Interview p.16-18

STAGE

20 Preview 1

Q2025 창작 희곡의 발견-
부인의 시대 & 우체국에 감영희와
경기도민이 정서가 담긴 창작 희곡

24 Preview 2

경기시나리오 오케스트라
2025 시즌 <Weekend Concert - 오후 4시>
주말 오후에 즐기는 소풍과 여행



26 Preview 3

2025 GGAC 기획 공연 프로그램
One and Only

28 Review 1

경기도민을 단테의 토리스 시즌 <예종>
출모로 담아낸 세종의 세사

32 Review 2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V
어브로크 공연작을 위한 합주곡
경기필하모닉의 실험:
고전을 현대화, 현대를 고전처럼



Attraction p.44-49

INSIGHT

38 Art and the City

빚이없는 세상에서 학계 관계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에 관한
기발하고 흥미로운 상상

44 Attraction

도시와 예술을 잇는 건축물
예술을 품고 도시와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50 Artist Talk

알림과 전설으로 빛나는 음악
경가(李金凱)의 새로운 클래식
활용한 음악 차려낸
연인들대금 수어 단편과 노래 음악 이야기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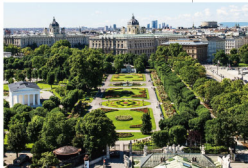
Artist Talk p.50-55



- 54 On & Off
확장하는 클래식 감상법
고전음악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는
내 권의 책이네 개의 유튜브 채널
- 56 Art Scene
Creative Convergence
창의적인 융합으로 빛나는
예술이 주는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

GGAC STORY

- 60 Zoom in
작품과 관객을 위한 사랑길
안전시설임 이용한-천호철자장의
재치된 고전적인 경가(李金凱) 선의를 위한 노력
- 62 GGAC News
경가(李金凱)의 새로운 소식
- 64 Calendar
2월과 3월의 공연 일정
- 66 Epilogue
봄을 기다리는 마음



Art and the City p.38-43



이 책의 QR코드
artbook 0100
연락처 02-338-4594

가 격 단 이 책 출간 : 2023년 02월 03일
종 격 172쪽 ISBN 978-959-459-459-4

발행처 경가(李金凱)센터
발행인 서용기
편집주간 김태환
편집장 이종진

지적재산권 : 조영우, 김태환, 서용진, 박상우, 김용호,
신현진, 김수현, 정우현, 이소현, 정은, 정재희, 전호철
주 소 경가(李金凱)수령서 발행부 수 300부
전화 02-230-1044

이메일 magazine@gcac.kr
홈페이지 www.gcac.kr
편집디자인 아우터(A, 사)

이 책의 저작권의 모든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JOURNEY



2025년 첫 호 스페셜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올해 1년간 펼칠 공연과 함께 출발한다. 1997년 10월 창단된 이래 베토벤 사이클, 브람스 사이클, 슈만 사이클을 포함한 연례리지 시리즈, 마스터피스 시리즈 등을 진행하며 연주력을 인정받은 경기필하모닉 오케라-레퍼토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유수의 음악 페스티벌과 필하모닉홀 등에도 초청받아 현지 언론의 호평을 받았고, 세계 유명 연주자들과 지속적인 호흡을 맞추고 성장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고 있다.

경기필하모닉을 지휘했던 세계적인 마이스트로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자의 요구에 친절하게 반응하는 오케스트라"라고 찬사를 보냈을 만큼 뛰어난 역량과 감각을 발휘하고 있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24년부터 '김선욱호를 따고 또 한 번 눈부신 향해를 하고 있다. 2025년 시즌에는 지휘자인 김선욱 예술감독과 함께 모차르트, 베토벤부터 말러와 브람스, 차이콥스키까지 거장들의 작품을 연주하고 젊은 작곡가의 현대음악을 선보이며 클라리 주이 김, 장인 원, 조성진과 협연하는 등 여섯 차례의 마스터즈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김선욱 예술감독과 경기필하모닉이 펼치는 매력적이고 깊이 있는 음악 여정을 함께하는 것으로 또 올 한 해를 예술적 감성으로 흥건하게 채울 수 있을 것이다.



Y OF 2025

2025 경기필하모닉, 눈부신행보

올해도 김선욱 예술감독의 리더로 펼쳐질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지난 연말 발표한 새로운 라인업은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연말연시가 되면 국내외의 대기업이나 IT 회사에서 한 해 계획을 발표하는 일은 크게 늦을지 않다. 하지만 국내 오케스트라가 공개 석상에서 시즌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4년 12월 18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경기필하모닉의 2025년 시즌 발표회 '온 더 레코드'는 그런 의미에서 흥미로운 자리였다.

이날 발표회는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선욱 예술감독의 '취임 2년 차 계획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는 취임 첫해인 2024년을 돌아보며 "오케스트라를 처음 맡다 보니 예상대로 절된 순간도 있고 아쉬움도 남았다. 하지만 단원들과 사제절을 보내면서 유대감도 생기고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자평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뒤 2006년 영국 리즈 국제 콩쿠르에서 18세의 나이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피아니스트로서 먼저 이름을 알린 김선욱 예술감독은 이후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지휘를 공부하고 영국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을 이끌며 피아노 연주와 지휘 활동을 병행했다. 지휘자와 피아니스트의 양수겸장****을 꿈꾼 것이다.





2024년 9월에 열린 마스터스 시리즈 1.
사뮈엘루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달리 교향곡 9번을 연주한
이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도 부르크하르트가 협연했다.

경기필하모닉은 김선욱 예술감독이 처음으로 감독직을 맡은 오케스트라다. 그는 취임 첫해인 2024년부터 연할 송년 인기곡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초여름인 6월에 연주하는 역발상적 접근으로 신선함을 선사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그는 “연말에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는 것이 세계적 관례가 되었지만 나는 ‘청개구리 습성’이 있다. 다른 오케스트라가 12월에 연주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가고 싶었다”라고 회상했다. 취임 2년 차인 올해도 그의 ‘청개구리 습성’은 계속될까? 김선욱 예술감독은 “2025년에도 다른 악단이 〈합창〉을 연주할 때 우리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연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 12월 11일 경기마스터스 시리즈와 12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여섯 번째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경기필하모닉은 차이콥스키의 〈비창〉과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악에 의한 관악곡〉(합연 조성성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의욕적인 협연자 섭외 역시 그의 취임 이후 두드러진 행보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라이나 호네의 2024년 10월 17~18일 마스터스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호네는 전반기에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했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연주한 후반에는 악장에도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보통 전반기 협연을 마치고 퇴장하는 다른 협연자들과 달리 그는 협연자와 악장으로서 모두 경기필하모닉과 호흡을 맞춘 것이다. 김선욱 예술감독은 섭외 비결에 대한 질문에 “음악이로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10여 년 전부터 실내악을 연주할 때마다 함께 연주하고 아이기를 나눴던 훌륭한 음악가들을 협연자로 모시기 위해 열심

김선욱 예술감독과
경기필하모닉은 올해도
진취적인 선곡과 연주, 훌륭한
음악가들과의 협연 등으로
관객과 소통한다.

혀 노력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좋은 연주자를 모시는 첫 번째 방법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2025년에도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첼리스트 지안 왕(9월 19~20일), 피아니스트 조성진(12월 11~12일) 등을 협연자로 초청했다. 클라라 주미 강과 지안 왕은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을 협연할 예정이다. 김선욱 예술감독은 "어릴 적부터 지안 왕과 바이올리니스트 길사함이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지휘로 녹음한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음반을 좋아했다. 첼로 독주가 천재반개처럼 들리는 도입부에서 무척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김선욱 예술감독의 올해 화두 가운데 하나는 현대음악이다. 2025년 5월 29~30일 열리는 세 번째 마스터즈 시리즈에서는 작곡가 신동훈의 비올라 협주곡 <심상 태양동(Tension)>을 아시아 최초로 연주한다. 신동훈은 작곡가 진은숙의 제자로, 2021년 '클라우디오 아바도 작곡상'을 수상

한 뒤 세계 유수의 악단을 통해서 신작을 발표하고 있다. 2025년 1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세계 초연에 이어 불과 네 달 만인 5월에 경기필하모닉이 아시아 초연의 기록을 갖게 된다는 점도 이채롭다. 이날 김선욱 예술감독은 여진 작곡가 신동훈에게 피아노 독주곡 <노래와 게임(Song and Game)>을 위촉한 뒤 2019년 영국 위그모어 홀에서 직접 초연한 인연도 공개했다. 한편 2025년 9월 19~20일 열리는 네 번째 마스터즈 시리즈에서는 손원훈의 <평화곡> 역시 세계 초연한



다. 그는 "첫바퀴 돌듯이 잘 아는 곡들만 들려드리는 건 음악가로서 의무가 아니다. 현대 음악은 어렵게 생각하면 낯설지만,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혁신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취임 첫해인 2024년, 김선목 예술감독은 밀려 교향곡 1번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 베토벤의 〈오페라를 위한 협주곡〉까지 근현대 관현악 걸작을 일괄하는 진취적 선곡을 선보였다. 상대적으로 취임 2년 차에는 모차르트와 후기 고

1. 그 조직을 통해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기업들의 모습
4 2024년 10월에 선보인마스트라 시리즈 IV
(오르카투스 양로의 생체)에
대한 바이오텔 합작국을 포함한 라이선스 호
5 5 공정을 앞두고 리치에서 합을 맞추고 있는
자신들 애용자들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한국 39~41세(2025년 3월 7~8일)나베로
본 교향곡 4~5번(10월 24~25일) 같은 고전
교향곡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는 "음악과 감
세와 미꾸리, 프레이즈와 리듬플레이션, 음
표와 음표의 표현 방법까지 모차르트는 기
본 중의 기본"이다. 그렇기에 오케스트라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간절할 수 없는 작곡
가가 베를 모차르트다"라고 했다.

2025년에는 김선숙 예술감독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8번을 직접 연주하면서 지휘도 겸하는 무대는 마련된다. 4월 19일 경자오(戊子) 섣달이어서 열리는 두번째 마스터스 시리즈다. 같은 달 그는 유럽 제4대 오케스트라와도 협연하는 협주곡 전곡과 피아노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휘자와 피아니스트의 연계를 모두 엿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김선숙 예술감독은 모차르트 협주곡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케스트라는 큰 관성의 실 내막"이라고 비유했다. 또 "모차르트의 협주곡에 대한 아이디어 역시 지휘대에서 실패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통해 직접 소리를 내면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밀은 줄 어늘고 속도는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다. 결국 음악가는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지는 의문이다. 이쯤이면 자신의 성과나 포부에 대한 평가도 후할 것 같지만, 김선숙 예술감독은 "저는 스스로에 대해 엄격하고 비관적인 편이다. 음악에서 완벽은 결코 있을 수 없기에 '매년 1%'만 발전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고백했다. 서른여섯 살인 지금은 '365일'이라는 자신의 음악 인생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가볍게 넘겨쳐질 질문에도 진지하고 무겁게 다룬다. 특히 지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언어로 소통하느냐"고 강조한다.

2025년 경기필하모닉 시즌 발표회 '온 더 레



프랑스는 항상 강기밀(國庫)의 안전화를 즐겨 찾는 권력들과 대립을 나누는 형식의 오프로 인형시로 열렸다. 하지만 강기밀(國庫)의 유류된 채를 통해서도 추후 권력은 모라인 북쪽항을 성곽도 마다한. 모라인과 오프로인 양력을 나누는 시도이기도 한 것이다. 형식은 권력과의 질의응답에 이어 김소현 예술감독의 임박하는 안보로 무대로 올랐다. 개인적으로 하는 발로 걷는 진행을 알아 보았을 권력은 왔다.

물 김성현, 조선일보 문화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다. (모
치르트), (오늘의 클래식), (88일 유럽 클래식 여행) 등
의 책을 펴냈으며, 유류브와 볼로그, 해설 음악회와 공연
등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일시 및 장소

2월 7일(토)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월 8일(토)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공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팅 정보

5석 1만 원, 4석 5만 원, 3석 3만 원, 2석 2만 원, 1석 1만 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5석 5만 원, 4석 3만 원

• 문의 031-230-3324

• 티켓 1544-2344

경기도립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I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라는 타이틀을 붙여지는 2025년 첫 번째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필생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교향곡 3번작을 연주한다. 뛰어난 교향곡 39번, 긴장감 넘치는 교향곡 40번, 그리고 마지막인 웅장한 교향곡 41번까지 모차르트 후기 3대 교향곡으로 채워진다. 김선욱 예술감독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천재적이고 감각적이며 창의적인 음악 세계를 탐구할 예정이다.

모차르트는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에게 세상

을 떠난 후 아내와 자식들까지 건강에 이상 이생기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이 곡들을 작곡했다. 세 곡 품은 각각 개성을 차이고 있음에도 하나의 연 거처럼 느껴진다. 모차르트는 이 세 교향곡을 1788년 6월에서 8월 사이의 6주 만에 완성 했음에도 재간이 다른 성격과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 기법적 정서적으로 고전과 교향곡의 가장 드높고 심원한 경지에 도달한 모차르트의 위대한 3대 교향곡을 김선욱 예술 감독과 경기도립교향악단이 빛아연 심세하고 아름다운 연주로 감상해 볼 것



GYEONGGI PHILHARP

2025 SEASON MASTER'S SERIES

I

이재대무스

- 모차르트 교향곡 39번
a장조, 작품 543
-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작품 550
-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C장조, 작품 551

지휘 김선욱
말자 및 장소
3월 7일(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월 8일(목)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II

루트, 국악, 첼리

-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5번 C장조,
작품 537
- 말러 교향곡 9번 e단조

지휘 이재대무스
말자 및 장소
4월 19일(토)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III

여형

- 말러 불후의
(영의 악장)
- 신동훈 <삼남 대장동>
(Theadams)
트라이스톤
- 멘델스존 교향곡 3번
a단조,
작품 59 "스프링랜드"

지휘 김선욱
비올라 이미리미 그로스
말자 및 장소
5월 29일 (목)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5월 30일 (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IV

가을에는 브람스

- 쇤베르크 정태화 (서곡)
-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a단조, 작품 102
- 브람스 교향곡 4번
e단조, 작품 98

지휘 김선욱
비올라 율리아 주이 강
말자 및 장소
9월 19일 (토)
롯데콘서트홀,
9월 20일 (토)
고경자음악회 아람음악당

V

봄날

- 베드포드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60
- 베드포드 교향곡 6번
c단조, 작품 67 "로망"

지휘 김선욱
말자 및 장소
10월 24일(토)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0월 25일(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VI

비창

- 차이콥스키 "피아노와
올리브 원상 서곡"
- 리스트-슈트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동서곡
작품 43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b단조, 작품 74 "비창"

지휘 김선욱
말자 및 장소
12월 11일 (목)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2월 12일 (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MONIC ORCHESTRA

교향곡, 그리고 모차르트

경가빌도나오케스트라가 2025년 첫 번째 마스터즈 시리즈 (마스터즈)를 통해 들려줄

모차르트 교향곡 3부작 30번과 40번, 41번 음악 역사에서 유의미하고

중요한 한 축이었던 교향곡이라는 장르,

그중에서도 위대하고 빛나는 경지에 도달했던 모차르트 교향곡의 스토리를 안다면

더 깊고 풍부한 울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작가를 뜻하는 라틴어 '클라시무스
(classicus)'에서 유래한 '고전(classical)', 혹은 '고전주의
(classicism)'라는 단어는 예술 장르에서 역사시
대에 걸쳐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하지만 현
재 음악에서 '고전'이라는 말을 쓰면 누구나
'빈 교전파'(Viennese Classic)로 알아듣는다. 빈 교

전파라는 말은 19세기 독일 음악가와 학자들
이 처음 쓴 이래 현재 전 세계에서 두루 쓰이
면서 빈 교전파가 서양음악에서 차지하는 열
대적 위상을 잘 보여준다. 빈 교전파를 18세
기 중반부터 슈베르트까지 확장했던 프리드리히
블루머(Friedrich Blume) 같은 음악학자도 있

고, 반대로 하이든 후기와 모차르트 음악 그
리고 베토벤의 기악 작품에서만 양식상 유사
성을 인정했던 파아스티이저 음악학자 찰
스 로젠(Charles Rosen) 같은 이도 있었다. 대개는
하이든 중기 음악부터 모차르트를 거쳐 베토
벤까지 음악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이 시기
는 서양음악의 변방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
아가 바로크 중후기에게 이르러 이탈리아와 프
랑스 음악을 하나로 종합해서 새로운 중심지
로 떠오른 과정의 결과이다. 그란가 하겐 완
성된 경지에 도달한 바로크 형식이 쇠퇴한 뒤
서양음악을 지배했던 짧은 과도기, 즉 가냘프고
장식적인 갈랑트(galant) 양식과 변화무쌍한 감
정을 그대로 표현했던 다짐(emphatic) 양식
을 뒤로하고 다시 음악예술이 안정된 형식이
를 구축한 결과였다. 나라와 지역마다 뚜렷한
양식적 특징을 드러냈던 바로크 시대와는 달
리 교전파 음악에는 유사성이 훨씬 두드러지
는 강력한 보편성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향곡은 클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
악 장르로 떠올랐다.

교향곡의 탄생

근현대 교향곡의 직접적 기원은 바로크 시
대 이탈리아 오페라의 서곡(sinfonia), 혹은 신포
니아(sinfonia)에 있다. 즉 극장에서 커튼이 올라
가기 전이나 악간에 연주하는 관현악곡으로,
때를 박한 극장에서 청중의 시선을 끌기 위한
음악이므로 대개 3악장 구성에 밝고 경쾌하
며 고음 파트가 주도하는 경조 음악이었다.



모차르트의 초상화



하지만 비발디의 '천을 위한 협주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깊이 있고 구성이 완전한 작품이 등장하면서 독자적 예술성을 갖추기 시작했고, 단지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성악이나 교회, 대중 연주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18세기 중반부터 빈, 만하임, 드레스덴, 베를린 등 독일어권 궁정 악단이 이런 경향을 이끌었는데, 특히 오스트리아 귀족들은 빈과 영지에서 번갈아 생활하면서 교향곡 문화를 제국 곳곳에 퍼뜨렸다.

요제프 하이든(Joseph Haydn)은 바로 이 무렵에 음악가로서 세상에 나섰다. 소년 하이든이 1739년 즈음 처음 눈에 띄었을 때 이 유서 깊은 도시는 이미 5세기 동안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였으며, 바로크 시대부터 화려한 음악 문화를 지녔었다. 특히 요한 크리스토프 바흐(Johann Sebastian Bach)를 필두로 크리스토프 빌헬름 글루크(Christoph Wilhelm Gluck),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비겐지일(Georg Christoph Wagenseil) 같은 작곡가들은 교향곡과 현악사중주, 오케스트라에서 빈 고전파의 기반을 닦았다. 1740~1760년대 중반에 걸친 이 단 전성으로 한층 위숙되었던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의 후기 교향곡 3부작은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가능성을 깊이 이해하면서 관현악적 융합함과 실내악적 내밀함을 모두 아우른 경지에 도달했다.

의 음악 문화는 1760년대 중반부터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다. 하이든은 바로 이 무렵인 1761년, 에스페라하지 궁정에 입단했고, 5년 후에는 카를 마이스터가 되었다. 1778년에 모제라크집이 완공되고 고봉주의 관심이 오케스트라 풀리기에 전까지 하이든은 에스페라하지 궁정에서 정기적으로 교향곡을 작곡해 연주해야 했다. 고전적인 '행중'이 있었으며, 자신의 음악적 영감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악단도 있었다. 그도 처음에는 당대 서극풍의 3악장 교향곡을 썼지만, 점차 '엔타페인먼트' 기능을 유지하면서 앞서 언급한 갈랑트다감 양식과 바로크 음악에서 물려받은 대위법, 그리고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Carl Philipp Emanuel Bach)에 배운 주제를 전개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음악

적 실험과 감성 표현을 시도했다. 30대에 쓴 작품들이 개성적이고 강렬한 '일출노도'를 보여준다면 네로 지온 이름 발공 '에스테르하지'에서의 그림자 생활도 일장 부분 영향을 미쳤다. 40대 이후로는 명성이 국제적으로 퍼지고 고봉주의 승인 없이 악보를 출판할 수 있게 되면서 파리와 런던 등 폭넓은 국제적 청중을 향한 보편적 매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1780년대부터는 유럽 음악 문화에서 교향곡이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부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이든은 교향곡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1780년대 중반부터 1790년대 중반에 걸쳐 발표한 '파라' 교향곡 시리즈(82~87번)와 '탄젠' 교향곡 시리즈(93~104번)는 그 빛나는 결과물이다.

모차르트 교향곡의 의미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뒤를 이은 빈 고전파의 두 번째 거장은 모차르트였다. 모차르트도 처음에는 이탈리아 신파-바로크풍의 짧은 교향곡을 썼지만, 점차 하이든의 성과를 이어 받은 숭상하고 진지한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1773년 여름에 빈을 다녀온 후 작곡한 교향

약 29년 6개월과 29년 A장조는 모차르트 교향곡의 첫 장곡 혹은 전향곡 같은 작품으로 여겨 10대작품을 창작하면서 놀라운 성과였다. 그 후 그는 몇 차례의 장거리 여행을 통해 만해임 악파와 프랑스 음악가들과 더 다양한 음악 장르도 포괄했다. 하이든과 차이콥스키로 대표되는 악사 가장 높은 차원으로 예술성을 지녔으면서도 다양한 계층의 청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중성을 아울러 자라는 점에서 '고전적'이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음악학 연구가이자 체임벌리스트인 하워드 찬들러 로렌스 챔버(Howard Chandler Chubb, London)는 모차르트 음악에는 하이든과 달리 듣는 이들 자신의 감정도 이기는 개인적인 친근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차르트에게 고향곡은 하이든만큼 중요한 장르는 아니었다. 그에게는 대체로 고향곡과 파바로 협주곡이 '일종의 대제작'이 때문이다. 가령 모차르트는 빈으로 이주한 이후 12곡의 파바로 협주곡(4·25번을 통틀어 1784·1786년) 고향곡을 전혀 쓰지 않았고, 그 후 작곡한 협주곡 작곡이 몰락하면서 비로소 고향곡으로 돌아와 38편(프러히와 마지막 세 곡을 뺀다) 하지만 35편(하프스)부터 41편(주피터)에 이르는 6곡안으로도 음악사에서 이 장르에 크게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모차르트는 (프러히) 고향곡에서부터 하이든 모델과 결별하고 새로운 세례로 접어들었다. 이제까지의 고향곡에서 볼 수 있었던 풍부한 관현악 어법과 복잡한 조성과 대위법, 반음계를 적극적으로 구사한 다채롭고 길이가 있는 기법은 영국악곡의 전통과 사치성을



Stacy Lee "가치적행동으로 같은 시기의 오퍼라 (문 조반나)와 비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그 가빈으로 이루한 후에 합하게 된 뛰어난 록 권이기 연주자들의 영향 오퍼라와 피아노 협 주곡을 쓰면서 오랜 새로운 관행과 작업, 그 리고 교향곡이되는 길을 자체의 높아진 위 상이 높아 있다

특히 마르틴 고흥곡 3부작(39~41번)을 통해 고흥곡 정르는 당시 사회구조에서 고흥곡이 차지하고 있던 유품 유희의 모습, 혹은 권위와 서곡과 결정적으로 결별하고 권한의 장를 뒤흔들었다는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된다. 모차르트가 하나의 단편인 동시에 개별 연주자와 집합인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가능성들, 이 이해하여서 관현악의 응집력과 삼라각의 내밀함을 모두 아우르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다. 6번에 대해 고(故)하인리히 엥켈은

는 고창곡 3부작은 일찍부터 여러 음악가
일종의 3부작으로 여러 찬가집에 연주했
는데, 심지어 독일의 지휘자 카를로스트인 나
폴라우스 아르놀트(Karl Arnold)는 열두
악장으로 이루어진 '가야 오라토리오'라고 주
제하기도 했다. 파퓰러도 유명한 이따가 다
빛나는 39번으로 시작해서 아름답고 신명감
으로 삼연을 질주하는 40번을 차니 고딕 대
성당처럼 웅장하고 당당한 41번으로 마무리
되는 거대한 3부작은 모차르트가 바하를 과
거해 현재까지, 혹은 계몽주의 시대의 최
대가라고 하다.



물어보면, 음악칼럼니스트, CPBCFM (이은영)와 비온드 음악(식) 진행자이며 CBSFM (하루다른) 담당에게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다. (여 음악사건) 저지(지)도 한 것은 같아 보며, 방송 관련을 통해 음악이 음악이 아름다운 곳 같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는 이 행을 하고 있다.

후회 없이, 매순간의 최선

임팩트대 위 신중하고도 열정적으로 향해야 하는 때 한 학. 그런 그림이 떠올랐다.
무성한 잡초 속에서 피어난 꽃에 햇빛을 쬌게 하고 거름과 물을 주는 정성스러운 기드너의 모습도 그려졌다.
김선숙 예술감독, 그리고 그가 이끄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그렇게 한 뼘 더 성장하고 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임기 2년 중 절반의 시간이 지나셨습니다. 소 회가 궁금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기에 짧은 기간이예요. 1년이 지난 지금, 제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경기필하모닉 단원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연주 한두 번으로 판단하기엔 쉽지 않으니깐요, 사례없이 자라는 동안과 전문악파 한테 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며 대하되는 대화. 연주다운 연주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는 바탕이 마련된 거죠. 지금은 그 바탕 위에서 향해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지난 1년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2년 동안 경기필하모닉이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술감독으로서 바라보는 경기필하모닉은 임기나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지휘자의 음악적 언어를 오케스트라 단원이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데, 초반보다 원하는 부분을 케치하는 것이 훨씬 빨라졌어요. 큰 그림은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디테일과 싸움입니다. 경기아트센터라는 아주 좋은 음악 시설을 갖춘 콘서트홀에서 계속 연주해 봐야 해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또 정규 연주회뿐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도 대대lijk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악을 좋아하는데도 공연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서 공연을 할 수도 있겠죠. 오케스트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더 많은 공연을 하려면 기출실 인원과 예산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쉽습니다. 저는 경기필하모닉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꽃 같은 연주를 하는 '잡초 속의 꽃' 같은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요.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연주자의 호흡이 중요하는데, 단원들과 소통하고 조율하는 과정과 그 분위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보완하길 바라해요. 음악가들은 말이 아닌 악기로 자신만의 언어를 표현하니까요. 다양한 언어를 통일시켜야 할지도 있고, 각자의 언어를 부각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는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제 음악적 언어를 요구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큰 틀은 유지하되 단원들의 자율적인 생각과 소리를 누르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돌아다니는 것도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해에 송년 연주회 인가곡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연말이 아닌 6월에 연주했고, 올해 12월에 예정된 마스터즈 시리즈에서도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를 연주하신다고요. 이렇게 독특한 선곡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이한 건 아니예요. 연말에 〈합창〉을 연주하는 게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관례처럼 굳어졌는데, 9월에 시작해 다음 해 6월에 시즌이 끝나는 유럽이나 미국에선 그렇지 않아요. 지난해 6월 경기필하모닉이 〈합창〉을 공연해서 선보인 건 2014년이 초연된 지 2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이었어요. 정확히 1824년 5월 7일에 초연되었네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 시기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연말에 반드시 그 곡을 연주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고요. 고정관념이었겠고, 그래도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저가 좀 정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연애 한 번 연말을 그 곡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력도 있겠지만, 저는 경기필하모닉 예술감독을 맡은 첫 해에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진 않았어요. 경기아트센터 관객들이 작년과 올해 똑같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고, 레퍼토리에 다양한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에서 올해 마스터즈 시리즈 공연도 차이콥스키의 〈비밀〉을 선택했습니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특별한 기준이 나야 하더라도 없었나요? 협연자가 없는 공연도 있지만, 일단 협연자를 스케줄을 먼저 확인하고 고려합니다. 1년 열두 달,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연이 이뤄지도록 섭외하는 건 가격에 가깝거든요. 스케줄이 가능하면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은지 물어봐요. 협연은 제가 생각하는 교향곡과 협연곡의 스토리가 잘 맞아떨어져야 사.치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2025년 첫 번째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아메테우스〉는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 3부작인 39-41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요.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음악가에게 가장 가깝게 되는 3명의 작곡가가

“함께하는 2년 동안
경기필하모닉이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한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SUNWOOOK

비호와 베토벤 그리고 모차르트예요. 이들의 작품에는 클래식 음악의 기본기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곡가의 작품을 잘 다루면 다음수록 그의 수많은 작곡가의 곡을 연주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호는 오리엔트 오~~~~~ 형식에 합창이 들어가는 곡이 많고, 오케스트라의 기본 중 기본인 베토벤의 음악은 대규모 편성으로 놀라운 곡이 많아요. 베토벤 이전엔 모차르트를 잘 연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은 연주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악기의 소리와 음질, 비앙트를 컨트롤하고 음악에서도 언어처럼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다야라해야 합니다. 음악의 기본을 잘 다져주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모차르트 교향곡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극하고 싶었어요. 모차르트는 작곡가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들어본 청중이 많지만, 그의 교향곡은 국내 공연에서 생각보다 많이 연주되지 않아요. 어려워서고요. 모차르트 교향곡 39~47번은 형태하고 굉장히 긴 호흡을 지니, 무엇보다 완벽하게 표현해야 하고 그 안의 내용도 충실해야 하는 곡들입니다. 단순함과 연대적인 면에서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가필하모닉의 기본기를 다지면서도 관객들에게 모차르트의 친이성이 장점에 올랐던 시기에 편인 교향곡을 들려드리고 싶어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넣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후회 없이 살자’예요. 지금 주어진 기회에 매 순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연주자로서, 또 지휘자로서 수많은 공연을 해오셨는데, 국내 클래식 음악 공연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선진국 사례에 비해 국내는 아직 제한적으로 루저에 인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인쇄실을 갖고 길게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장기적 루저가 필요해요. 클래식 강국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좋은 연주자가 많지만, 실상 아를 몇몇하는 형질이나 시스템은 미비하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케스트라도 발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루저하는 건 너무 쉽게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해요. 또 아직 발전되지 않은,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가 많아요.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관객들도 인쇄심을 갖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본다면 좋겠어요.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예술 기관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클래식 공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열악한 시스템이나 환경일지라도 의지를 갖고 실행해 나가길 바랍니다.

김선욱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공세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다만 2025년 시즌 발표회 때도 예기했듯이, 어릴 때부터 1년에 1퍼센트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가,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1퍼센트 후퇴하지 않으면 다음이 또 4월이었던 3월이냐 3퍼센트만이라도 성장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 삶이 언제까지 허락할지는 모르지만 100퍼센트는 있을 수 없고, 70대에 70퍼센트 정도만이라도 성장해 있길 바랍니다.

젊은 음악가로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연주자의 경가필하모닉 지휘자-예술감독관으로서 과부하여요. 일단 모재(1월 18일) 열리는 '2025 경가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잘 마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게 끝나면 그다음 공연이 목표고요, 1년 후도 아직 알 수 없고 40대 중반이면, 50대와 60대가 되면 또 다르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악기로,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경가필하모닉도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후진 양성까지도 이루어져도 좋은 기량을 가진 후배들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싶고요. 제 인생의 모토가 '후회 없이 살자'예요. 지금 주어진 기회에 매 순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경가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간이 한참에 남지 않은 게 아쉽긴 하지만,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1년처럼 남은 1년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더 많이 기대해서도 좋습니다.

글: 이경주



S

Preview 1

〈2025 창작화곡의 발견-
부담의 시대& 무제곡에 감명하다〉
경기도민회 정사가 담긴 창작 화곡

A

G

Review 1

경기도민회관 리틀의 시대〈세종〉
풍으로 일어난 새로운 역사서

T

Preview 2

경기시나리오게스트와 2025 시즌
〈Weekend Concert - 오후 4시〉
주말 오후에 즐기는 소품과 여류

Preview 3

2025 GGAC 기획 공연 프로그램
One and Only

E

Review 2

경기탈하모니 마스터즈 시리즈 V
〈어레브그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경기탈하모니의 실험
고전을 현대리뷰, 현대는 고전처럼

〈2025 창작회곡의 발견 - 부인의 시대 & 우체국에 김영희씨〉

경기도민의 정서가 담긴 창작 회곡

2025년 경기도극단의 첫 기획 공연으로 2023년 '경기아트센터 제3회 창작회곡공모' 당선작

〈부인의 시대〉와 〈우체국에 김영희씨〉 두 작품이 찾아온다

〈부인의 시대〉와 〈우체국에 김영희씨〉는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남독극(2024년 2월 7일)과 일제 남독극(2024년 3월 6일)으로 선보여 창작 회곡의 매력을 증명할 수 있었던 작품이다. 올해 경기도극단의 첫 기획 공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두 작품은 김광보 예술감독의 연출과 경기도극단 배우들의 밀도 높은 앙상블로 완벽한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1부 〈부인의 시대〉는 어느 하루 권력실에서 일하는 '부인', 네 여자의 이야기다. 경기도 연천, 모든 기계 주인이 머털리듯 떠난 자판값 저적 한가운데 삼처럼 남아 있는 지방 권력실에 있는 네 여자. 경찰과 철거 용역업체가 끝내 두 발이 버릴 일동까지 써야만할 심산으로 몰아대려왔음에도 이들이 버리고 있는 이유는 남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 때문이 아닌, 갈 곳이 없어서

다. 과연 이들은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이 흥미로운 내용을 그려낸 이미경 작가는 수차례 수상한 경력과 다양한 희곡을 쓰고 저서를 발간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두 발을 디딜 곳마저 사라지고 하늘과 땅 어디에도 속할 수 없을 채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작가는 "미지각에 호모사피엔스가 머물 수 있는 공간, 디아스포라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이 글





2024년 7월 6일 일제 강점기
주요 인물 (주연의 사위) 2인 3인





- 일시
3월 20일(목)~22일(토)
월~토(목)~토(토) 오후 7시 30분
주말(토)~토(토) 오후 4시
- 장소 경자아트센터 소극장
- 금액 R석(1층) 3만 원
S석(2층) 2만 원
- 연극지평에서 사남 윤지철 구매 1만 원
- 문의 051-230-3302~4
- 예매 1544-2344





1. 2020년 3월 6일 입영감독작으로
선보인 <우체국>의 김경록 감독.
2. 장작 화국 두 작품을 출품한 이인 공연의
연출을 맡은 경기도극단 김문보 예술감독.



을 쓰게 되었다"라고 직언을 밝혔다. 제목에
서 '우연'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네 여자
모두 '우연'하고 싶은 바람이 서로에 의해 발
가뻐져지며 이 세상에서 '우연'되는 이야기를
그린 것. 대상 수상자 선정 당시 "오늘날 경기
도민의 고민이 드러나는 통시대적 주제를 잘
다루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2부 <우체국>에 김경록씨는 기묘한 소문에도
는 연천의 어느 우체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다. 떠올려볼 소문이 돌 때를 제외하곤 지역
주민이 간간히 방문하는 조용한 우체국. 그곳
에 존재감 넘치는 신임 직원 김경록이 들어오
면서 우체국이 사뭇 사뭇해진다. 작가는 현대
인이 '누군가로부터 받는' 경향을 가장 직접적
으로 하는 순간이 택배를 받을 때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많은 것을 주고받는 행위

가 일어나는 상징적 공간인 우체국에서 다양
한 사건과 마음이 오가는 순간을 담고 싶었다
고, 이 이야기를 탄생시킨 박길옥 작가도 회
극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상 수상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들은 "우체국이라는 작지
만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는 장소의 경기도
를 결합해 지역 정서를 따뜻하게 그려내서도
생생한 인물들을 통해 한정된 공간을 경쾌하
게 드러냈다"라며 호평했다.

1년 전 낭독극으로 첫선을 보인 두 작품이 김
문보 예술감독의 공평하고 철저한 희곡 분석
과 지도 높은 연출을 통해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를 모은다. 글 권민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2025 시즌

〈Weekend Concert - 오후 4시〉

주말 오후에 즐기는 소통과 여유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다양한 관객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 음악회를 준비했다

친숙하고 쉬운 음악으로 여유로운 힐링 시간을 선사하는 무대다

〈Weekend Concert - 오후 4시〉는 관현악과 전통문악 사물놀이, 민요, 무용 등을 편만하고 쉬운 음악으로 구성해 성인 관객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남녀노소 모든 관객이 함께 소통하고 친목을 다지며 즐길 수 있는 음악회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김성진 예술감독의 지휘와 JTBC 프로그램 〈이정상 화답〉으로 친숙한 방송인이지 피아니스트인 다니엘 린데만의 해설로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설을 맡은 다니엘 린데만은 차분하면서 논리적인 언변과 한국의 역사문화에 관심을 쏟는 모습으로 또 한 번 관객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첫 번째 공연은 '오후 4시: 깃들임'으로, 도심 속 자연과 국악의 만남을 표현한다. 자연에 깃들다 양향 소재의 이야기를 친근하게 풀어내며 섬과 여유를 전하는 국악을 들려준다. 두 번째 공연은 '오후 4시: 속삭임' 소음에 감춰진 도심 속 소리 풍경과 자연이 전하는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사운드스케이프를 중심으로 각양각색의 특색 있는 소리를 국악과 접목해 삼재악 구성의 다채로운 형태로 선사한다. 세 번째 공연 '오후 4시: 돌'은 도상에 서릴 수 있는 작은 공간, 틈을 표현한다. 무심코 지나치거나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에 대해 되짚

어볼 수 있는 시간을 아름다운 국악관현악과 함께 가져볼 수 있다. 마지막에 번째 공연 '오후 4시: Timeless'는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 국악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음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 주말 오후, 일상의 피곤함을 잊을 만큼 편안함과 여유 즐거움이 가득한 힐링 타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당일



- 일시 3월 15-29일
4월 12-29일(주) 오후 4시
- 장소 경기국악원 국악당
- 공연 전석 30만 원
- 문의 031-289-6472-5
- 해매 1544-2344



1차년배 (Weekend Concert - 오후 4시) 공연을 선보인 김성진 예술감독과 경기시사-위오케스트라. 그 2024년에는 예술감독을 맡았던 다니엘을 전담하여 무대에 올라 김성진 예술감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 2024년 5월에 선보인 (오후 4시: 다시, 천주) 공연 모습. '천주와 사람'을 중심으로한 국악관현악을 볼 수 있는 무대였다. 그 2024년 첫 번째 (Weekend Concert - 오후 4시) 공연은 김성진 예술감독의 경기시사-위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첫 무대이기도 했다.



2025 GGAC 기획 공연 프로그램 ONE AND ONLY

2025년에도 경가아트센터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
그중 경가아트센터의 새롭고 신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공연은 놓쳐선 안 될, 꼭 추천하고 싶은 하나뿐인 무대다.

FEBRUARY - NOVEMBER



시크릿 프로그램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입문하는 관객이라면 경가아트센터를 대표하는 공연 프로그램을 주목할 것.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계속되는 (사) GGAC 콘서트)는 소설과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두려운 고전 소설을 90분 만에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북 음악 콘서트다. 소설 작가 진행을 맡아 음악과 소설이 접하는 여운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올해는 세계안계없는 사랑을 받은 (재)인간과 한국 문학계를 빛낸 고전소설을 무대에 올려 고전 작품과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선사한다.

《Classic of My Playlist》두 번째 시즌도 더욱 풍성해져 돌아온다. 이번 시즌에는 대중가요, 뮤지컬, 댄스, 영화 드라마 OST,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관객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Classic of My Playlist》

- 일시 2월 14일(일) 오후 7시 30분, 4월 12일(토) 오후 4시, 8월 23일(토) 오후 4시, 11월 29일(토) 오후 4시
- 장소 경가아트센터 소극장
- 금액 R1 4천 원, S1 3천 원

《(사) GGAC 콘서트》

- 일시 3월 15일(토) 오후 7시 30분, 8월 3일(토) 오후 4시
- 금액 R1 3천 원, S1 2천 원

MAY



2025 GGAC 경기도 어린이 축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기도 내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꿈과 웃음이 가득한 축제를 연다.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공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마련하고, 광장에는 대형 에어바운스, 미니 빌버가 깊은 놀이기구를 비치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한다. 여기에 전문 MC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과 미술 공연, 퍼포먼스까지 펼쳐져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기 그만이야. 어린이들의 참여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부스와 푸드 트럭, 편안한 휴식공간도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데 한 몫한다.

- 일시 5월 1일(목)~5일(토)
- 장소 경가아트센터 앞광장



광복 80주년 국악 컨타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국 선율들의 독립 정신을 기리는 경주시 나우오케스트라의 특별 공연이 열린다. 다양한 관현조를 통해 광복의 의미와 기쁨을 기념하는 경기도 문화 사업의 일환이다. 〈광복 80주년 국악 컨타타〉가제는 합창과 관현악의 만남으로 특별한 울림을 선사한다. 또 민족의 역사가 담긴 관현악곡과 민족의 화합을 노래하는 〈여리랑〉, 〈애국가〉 모음을 작곡상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일시 8월 23일(화) 오후 4시 •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 금액 좌석 4만 원, 5석 3만 원, A석 2만 원



2025 경기청년예술가화무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작 및 기획 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오디션을 통해 음악, 무용, 연극 분야의 재능 있는 청년 예술인을 선발한다. 성과 발표 공연 무대를 통해 젊은 경기 예술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일시 9월 23일(화)~27일(토)

•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

올해도 X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청소년 음악인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현연합대의 우수한 클래식 인재들이 참여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며 음악에 대한 꿈과 열정을 한껏 펼쳐 보이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무대에 올라 음악의 교감을 나누는 청소년 음악인들의 모습은 이 축제의 핵심. 특히 이번 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성장과 도전의 가치를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 일시 9월 6일(토)

•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025 대한민국 피아노 피아노 페스티벌

대한민국 대표 피아노 축제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피아노 단일 악기 페스티벌이 2025년 8회를 맞이한다. 올해도 피아노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클래식과 아름다운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스폰서 연주자들이 펼치는 협연과 독주 무대는 전 세대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달 것이다.

• 일시 9월 20일(화)~26일(토) •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SEPTEMBER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세종〉 춤으로 담아낸 세종의 서사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과정을 예증의 시점으로 재해석해 춤의 드라마로 펼친 대작 〈세종〉.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공연의 지속 가능성과 자력을 가능케 할 의미 있는 무대였다.

우리 나라에는 각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국립 시립·도립 단체가 상당수 있다. 그중 일부는 해당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도 높은 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무용단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도무용단은 1993년 창단 이래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을 망라해 우리 춤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 의식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운영 시스템, 재정 확보, 단원 기량, 레퍼토리 보유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 수 있었던 데는 경기도문화의전당 권리와 감독뿐 아니라 역대 예술감독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에게는 무용계에 굳직한 발자취를 남긴 고*정재관, 조흥동, 김근식, 김성학 등 여러 무용가가 거처갔다.

이러한 경기도무용단의 역량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정기 공연을 꼽을 수 있다. 현재 김경숙 예술감독이 이끌고 있는 경기도무용단은 신작 〈세종〉을 2024년 12월 6~7일 경기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초연했다. 문화 정체성 감각을 통해 새로운 한류 문화



무용계에 널리 알려진 전문가들의 협업
(세종)은 경기도무용단 이외에도 삼일 안무
이현주, 지도 최진숙, 객원 안무 강요찬의 최
종인을 비롯해 연출 이태환, 작곡 장석진, 지
휘 조광석, 무대 디자인 박동우, 영상 디자인
오하늬, 조명 디자인 김철석, 의상 디자인 민
천홍 등 외부 전문가를 상당수 초빙해 제작
한 작품이다. 이전에 국립무용단, 경기도무용
단, 인천시립무용단, 전라도립국악원 무용단
등의 창작에 참여한 경향이 있는 이가 적지
않다. 무용 대작을 만드는 데 각 분야 전문가
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여 높은 역량을 인정
받은 이들이 이번 창작 과정에서도 많은 도
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라면 이들의 협업이 기대만큼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작품의
총체성을 이루는 구실들이 다소 느슨했기때
문으로 보인다.

경기도무용단의 예술적 역량 투영된 〈세종〉은 세종대왕의 일대기 중 한글 창제 과정을 무용극 형태로 선보여 문화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단원들의 예술적 역량은 〈세종〉을 지탱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세종 역의 김용범, 소
현왕후 역의 박지유, 예종 역의 정준용, 최한
리 역의 김상열, 정인지 역의 박영일, 박영년
역의 이진택, 여중(소리) 역의 서의철을 비롯
한 30여 명의 단원은 변함없이 경기도무용단
의 예술적 퀄리티를 지탱하여 충실을 꾀는 역
할을 수행했다. 여기에 경기사나워오게스트
러의 풍부한 곡성을 뒀던 연주진과 관객의 칭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주요 제작진의 고군
분투도 돋보였다.

안무 전체에서 찾아봐야 할 사항
중 3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세종〉의 1막은
경요한, 2막은 이현주, 3막은 최종인이 세부
적 구성을 담당했다. 1막과 2막은 스토리라인
을 의식한 물것으로 무용극의 완성을 설계
했지만, 그라디 보시나스 평이하고 단조로
운 동작으로 구성된 부분도 있었다. 3막의 안
무는 통사대 창작 트렌드 중 하나인 집단 무
용 형태를 따며, 젊은 감각의 한국 창작 무용
느낌이 강하게 남는다.

이러한 집단 무용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전체가 하나로 반응하여 전체적 흐름을 유지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조직적 구성을 탄탄하
게 유지하면서 설계한 부분 반주를 쫓아 전
개해야 하는데, 이는 최종인에 의해 훌륭하
게 구현되었다.

극장에서 집단 무용은 스테파니 레이크의 〈플
로레스〉, 사하르 반아미나의 〈블러드 2022〉,

위, 경기도무용단의 예술적 역량을 보여준 〈세종〉.

아래, 유지하면서 설계한 부분 반주를 쫓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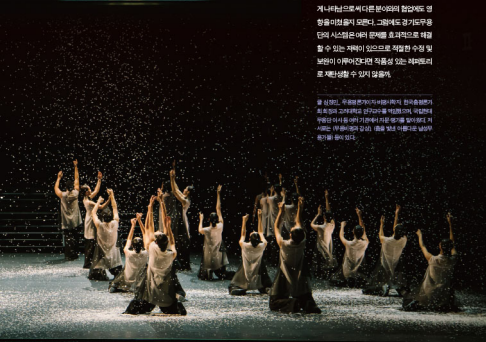
흐름으로 구현한 집단 무용 장면.





예미은 크루자의 (Metamorphosis) 등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대부분 현대무용계에 집중된 성과라는 점에서 한국 창작 춤으로 집단 무용에 빠르게 적응하고 실험에 옮긴 최 종언에게 놀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갖 서른이 된 젊은 무용가지만 통시대 창작 무용 트렌드에 대한 탐구력은 아연 공연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작품의 흐름 상 질감이 다소 디리지는 점에서, 이를 독립된 예술적 가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외부 안무가인 강요찬은 안무 자체보다는 장치나 오브제를 활용하는 시뮬적 연출에 두 각을 나타내고 있는 까닭에 이번에는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전통가들과의 협업에서 구상장이 약해 보이는 문제는 안무 전개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어쩌면 이 문제가 안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다른 분야의 협업에도 영향을 미칠는지 모른다. 그 외에도 경기도무용단의 시스점은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이 있으므로 적절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작품성 있는 레퍼토리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을 심정민, 우윤영 등까지가 배정까지 한국출판문화회 회장과 고해태교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국립현대무용단 이사들이며 기관에서 자문 역할을 맡아왔다. 저서로는 《무용사회의 길》, 《춤을 잊고 아픈 것은 남성무용가들》 등이 있다.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V <버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경기필하모닉의 실험: 고전을 현대처럼, 현대는 고전처럼

2024년 마지막 마스터즈 시리즈 <버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공연은
특별한 손님맞이를 위한 잔칫상처럼 흥성하고 생동감이 넘쳤다.

연주회 객석에 앉아 반신반의할 때가 있다. 프로그램에 위촉곡이나 세계 초연곡 같은 동시대 음악, 즉 '현대 음악'이 있는 경우다. 시간의 세례로 검증받고 차차 통쾌하고 미학적 가치를 더해 가는 고전 음악에 비해 국이나 연주자의 완성도에 확신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13일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 '경기필 마스터즈 시리즈 V'는 달랐다. 동시대 음악을 연주한 첫 관현악곡 <수비토 폰 포르체>가 다름 아닌 진문숙 작곡가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선옥 예술감독과 진문숙 작곡가의 만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문숙 작곡가가 기획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아레스 노바' 시리즈 공연에서 김선옥 예술감독은 페테르 외트비시가 지휘한 서울시향과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협연했다. 난곡이었지만 공연 후 김선옥 예술감독은 "극히 자닌 힘, 리듬의 탄성, 어렵지만 고고한 색채, 모든 아름다운 조사를 맞춰

가는 과정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밝혔다. 2014년 김선옥 예술감독이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향과 진문숙의 피아노 협주곡을 도이체그라모폰에서 발매했을 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국제클래식음악상(ICMA) 현대음악 부문에 수상하고 클래식 음악 전문지 <그라모폰>의 추천도 받았다. 김선옥 예술감독은 베틀린 필하모닉과도 진문숙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다. "협연하는 작곡가와 교류하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사명감으로 통시



1진문숙 작곡가의 <수비토 폰 포르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베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Op. 114>를 연주한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2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은 우리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수석을 맡고 있는 지스킬 모라게르가 협연했다.

더 음악을 연주한다"라는 김선숙 예술감독은 지금 세계에서 진은숙 음악의 핵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주자이자 지휘자 가운데 하나다. 〈수비토 콘 포르차〉를 연주하기 위한 경기말의 무대는 조금씩게 차린 전철상을 연상시켰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에서 활약했던 이 지휘가 악장 차리에 앉아서 더욱 믿음을 주었다. 2020년 음악 애호가들이 한껏 기대했던 베토벤 탄생 250주년 공연은 님은에 부딪혔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생일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진은숙이 이 해에 작곡한 관현악곡 〈수비토 콘 포르차〉는 BBC 라디오 심포니, 필몬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의 공동 위촉으로 탄생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작품은 2020년 9월 일스테트룸에서 클라우스 예릴레가 지휘하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가 세계 초연했다. 스코틀랜드 일간지 〈더 스코츠맨〉은 "베토벤에 대한 공격적인 찬사, 베토벤의 단편이 폭죽을 점화하듯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평했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5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지는 효과적이고 오스스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지휘자 파보 예르메는 언젠가 베토벤 음악의 특징을 '포르타토'로 설명한 적이 있다. 찬악기의 활을 갖고 있는 불안함을 조금씩 풀어주는 주법으로, 딱딱 끊어지는는 스타카토와 부드럽게 이어지는 레가토의 중간을 말한다. 너무 '재깍'하지도 '다정'하지도 않네, 음 깔이 4분의 3도나 내려서 호쾌하고도 단호한 베토벤 특유의 느낌에다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와 더불어 갑자기 힘차게라는 뜻의 〈수비토 콘 포르차〉는 베토벤 음악의 특징을 잘 포착한 음악이자 인상적인 관현악곡이었다.

진은숙 하면 떠오르는 섬세한 관타자풍 작품은 유감없이 발휘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의 역력한 기상을 파편화



해 타이틀을 써서 인도네시아 전통음악 가를 *gamelan*의 동원적 반박임과 21세기적 세련미가 공존하도록 처리했다. 경기말의 한 관타악기 모두 김선숙 예술감독의 손끝에 기민하게 반응했다. 어릴지 않게 동시대 음악의 오리를 빛내주는 솜씨가 계운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성공적인 이번 연주의 차지 않은 부분은 김선숙 예술감독이 작곡가와 소통한 덕분에 이라고 생각된다.

진은숙의 곡과 베토벤의 협주곡 사이에 연주된 고전주의 작품인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은 파스칼 모라게스 Pascal Moragier가 협연

했다. 1981년부터 파리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수석을 맡고 있는 모라게스는 유구한 전통을 이어오며 특별한 음악적 자질을 프랑스 목관악기의 탁월함을 여실히 증명했다. 모차르트의 작품은 조금이라도 휘가나 잊지 않으면 어색해진다. 많은 연주자가 모차르트 음악을 연주할 때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다. 모라게스의 클라리넷은 마치 보호석을 따는 존재처럼 경기말의 색깔에 맞춰 녹아 들어갔다. 그의 연주에서는 늘 가는 카테에서 컷된 단계를 마실 때처럼 자연스러운음이 우러나왔다. 2악장에서는 클라리넷에 스토리라인이 집중되면서 클라리넷의 보컬이 그리는 천상의 선을 같은 지면에 몰입할 수 있었다. 3악장에서 클라리넷은 여유로운 호흡으로 오케스트라와 동행하거나 때로는 서포팅하는 인상을 했다. 시끄러운 이벤트가 아닌 모차르트

2024년 마스터즈 시리즈 V 공연은 어떤 상황에서 극복하거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을 주제로 한 세 곡의 연주로 과감한 실험을 선보였다.



만년의 알고 투명하고 고요함에 귀가 기울이게 하는 수련¹⁾이었다. 연주를 마치고 정중하고 신실한 예너로 커튼콜에 응한 모리세스는 특별한 앙프로 무대를 선사했다. 김선옥 예술감독이 무대 왼쪽 구석의 피아노에 앉아 모리세스의 클라리넷과 함께 슈만이 작곡한 3개의 로망스 Op.84 중 2번을 연주했다. 단 두 악기가 두런두런 나누는 낭만적인 대화에 예술의 전달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다. 메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베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합주곡 Op.116은 과감한 선곡이

김선옥 예술감독과 경기필하모닉은 고전을 더욱 새롭게 제시하고, 동시대 음악을 고전처럼 완성도 높게 만들어냈다.

었다. 지휘자 세르게이 쿠세비츠키가 이끌던 보스탄 심포니의 위촉으로 7주 만에 완성한 베르토크의 대표적 관현악곡이자 그의 작품 중 가장 교향곡에 가까운 걸작이다.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사키고 심포니의 리벤스 대향오 음반이나 지휘자 파예르 볼레즈가 이끄는 사키고 심포니의 DG 음반을 주로 들었지만, 이 곡은 실제 연주가 곡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힌트를 제공한다. 김 김선옥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경기필의 연주를 들으며 새삼 느꼈다. 임보로 지휘한 그는 오케스트라 세계감을 열고 깊게 변화시켜서 곡을 이끌고 있다. 1악장에서 솟구치는 제 주제의 생경력이나 2악장에서 직은체의 리듬에 이어 관악기들이 쌓을 이루어 연주하는 장면, 3악장의 우



연주가 끝난 뒤 관객들 앞에 선
김선옥 예술감독과 경기필하모닉 단원들.

물집이라든지 4악장의 소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주제가 주는 골격미, 마지막 악장에서 변화무쌍한 흐름을 보이는 감렬한 예니지 등은 김선옥 예술감독의 일관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훨씬 파부에 잘 와닿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악기 연주의 깊이감과 스케일감은 음반은 따라올 수 없는 마쳐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에 와 있는 느낌을 주었다. 긴장의 지속성과 스펙터클함 면에서 이 곡을 더 들어보고 싶게 만든 연주였다. 이런 곡을 연주할 때 악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는데, 객원 악장 이자혜의 정교한 연주가 확연히 돋보였다.

김선옥은 예술감독 취임 일성으로 “경기필하모닉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경기필은 성시연, 마시모 자네티를 거쳐 김선옥 시대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빠른 성장으로 김선옥의 오케스트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월드 클래스 피아니스트로서의 눈높이와 경륜이 경기필 예술감독의 역할이 되어 스며드는 심루현상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런 공연을 “어

떤 상황을 극복하거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을 주제로 구성했다”라는 김선옥 예술감독, 그의 파격한 실험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고전을 더욱 새롭게 제시하고, 동시대 음악을 고전처럼 완성도 높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2025년에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한다.

글 류재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집안나스트,
김길은 음악과 여행지 깊은 공연장을 오가며 글을 쓴다

Valentine
Dream
Concert

2025. 2. 14.(금)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Art and the City
한자 없는 세상 하에 특권계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에 관한
기행이고 흥미로운 상상

Attraction
도시의 매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시의 매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시의 매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Artist Talk
별칭과 진심으로 말하는 음악계
경기나노스튜디오의 활동과
60년 대를 이어 단행된 노골적인 이야기

On & Off
확장하는 물리적 상상
고전음악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네 손의 책과
네 개의 유튜브 채널

Art Scene
Creative Convergence
창의적인 융합으로 찾아온
새로운 예술의 움직임

빈이 없는 세상의 역학 관계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세계, 오스트리아 빈의 풍경이 결코 그려지는 못했다.

올해 1월 1일에도 아깝잖아 빈 빌하에닉 신년 음악회가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경쾌한 왈츠 선율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이다. 왈츠의 왕이라 불리는 슈트라우스의 아름다운 리듬과 선율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도시는 형언할 수 없이 대단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 세계 도시를 여행하며 음악을 포함한 다채로운 예술을 탐미하는 컬럼니스트 정준호가 지금은 엉뚱하지만
기발하고도 흥미로운 상상을 담은 빈 이야기를 보내왔다. 만약 빈이라는 음악의 도시가 없었더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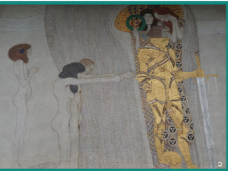
그에서 반해서 일어난 모든 역사적, 예술적 장안들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어땠을까?



빈은 오스트리아의 역사적 명칭
예술의 원천인 + 문화들이 도시 곳곳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막연히 '음악의 도시'로 생각하는 빈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 보았다. 음, 먼저 아무것도 없던 공원을 학교와 기숙사로 쓰는 빈 소년 합창단이 사라진다. 이 합창단 출신인 요제프 하이든도 음악가의 꿈을 접고 아버지 밑에서 수레바퀴수난을 겪고 있다. 미상¹⁾의 대니얼 뎀 프란츠 슈베르트도 아버지 학교의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독일은 하이든의 천학 사중주(합제)의 2악장 대신 다른 곡을 국가²⁾로 부르며, 슈베르트의 《물장미》도 《송어》도 《보라수》도 없다. 빈 소년 합창단이 없으니 당연히 조니 영화(노래의 천사들³⁾ Alex and Angel(1962)도 존재하지 않는다. 합창단원 뱀과 친구 파타와 프리델도 만나지 못했다. 뱀의 뿔을 한 주일 대미사 독창도, 아슬아슬한 어린 이 병원 위문 공연도, 순회공연을 일문 파터의 변성기도, 슈트라우스 윌헬름 모른 학예회 때 아이들이 꾸민 엉뚱한 계획도 없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시절 《노래의 천사들》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어떤 글쓰기가 아닌 다른 일로 먹고살 것이다. 별일 아니다. 빈이 없었다면 베네치아의 벨간 마리 사제 안토니오 바빌다가 신성로마제국 합제 카를 6세의 후원을 기대하고 이 도시에 왔다. 객사할 일도 없다. 초크 케이크 자허트케⁴⁾ Zucker-Kuchen로 유명한 자허 호텔 밖에 '바빌다가 살았던 곳'이라는 영판도 카를 교회 옆에 그가 묻힌 곳이라는 표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할 잘



1빈의 베르토펠 공원에서 있는 베르토펠 동상. 2 빈 빈디자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베르토펠 프리즈》 복제. 베르토펠 교황국 90년 축하제일로 표현했다. 3 왕궁 정원 부르크가라덴에 있는 조니 영화 동상. 4 베르토펠 궁전의 5층과 4층 사이에 달려진 장판.

츠부르크를 떠난 볼프강 아이제우스 모차르트도 프라하나 린 같은 도시로 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린강변 본¹⁰⁰ 태성의 루트비히 폰 베토벤도 그를 찾았을 것이고, 한자¹⁰¹를 명명 할부르크의 요하네스 브람스, 보헤미아인 구석의 구스타프 말러도 각자 선배 뒤를 따랐을 것이다. 린이 아닌 다른 도시가 음악의 수도라고 생각해 보자. 만일 그곳이 린이라면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나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을 영어로 부를 것이다. 아니, 베토벤이 프리드리히 실러의 〈천재의 송가〉가 아닌 영국낭만주의 시인 알라임 블랙버나 할리엄 워즈워스의 가사여 곡을 붙였겠지.

빈이 없었다면 '황금의 획' 구스타프 클림트는 무엇을 했을까? 발레¹⁰²에 공연에 가도 오페라 〈트라스탄과 이졸데〉가 연상되는 그림 〈잠잠춤¹⁰³〉이 없다. 있었다면도 발레¹⁰⁴에 공연이 없을 터이니 다른 곳에 걸렸을 것이다. 빈을 오스트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낸 사바의와 오이겐 공이 다른 도시에 발레¹⁰⁵대를 세웠을 터니까. 빈 중심가 황슈트라세¹⁰⁶에 새로 지은 부르크 극장이 없으면, 젊은 클림트가 스승 한스 마카르트 대신 몇 부르크 극장의 관객석을 그림 일도 없었을 것이다. 빈 시민 박물관에 걸린 그림 속 19세기 말 빈의 명사들도 전자처럼 사라질

것이다. 쇤브른 공전의 아름다운 정원과 동물원의 뜰¹⁰⁷도 물론 없다. 빈 국립 오페라극장이 없으니 그 안에서 초연된 수많은 걸작은 고사하고, 이선 헌트가 〈푸렌도트〉 공연 중에 수상¹⁰⁸의 입상을 막아내고 노란 슬링 드레스를 입은 일사 파우스트와 극장 지붕에서 뛰어내린 뒤 해안히 사라지는 〈미선 입막사도〉도 못 봤을 것이다. 오손 볼스가 〈제3의 사나이〉에서 검투¹⁰⁹ 패하가 된 도시의 지하도를 휘젓는 장면도, 뫼뫼한이선 호크와 줄리 델피가 연하 〈비로 선의〉에서 그림 같은 빈 사투를 들어다녀¹¹⁰ 밀고 당길 일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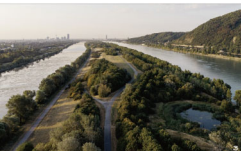


반이 없었던 독일 남부 뮌헨 아래 슈타른베르크 호숫가에서 자라
 던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트 황후, 시씨¹⁸⁷⁰도 사촌 오빠인 오스트
 리아 황제와 결혼하여 독일에서 멀리까지 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랬
 다면 다른 친척인 바이에른 왕 루트비히 2세의 아내가 되었을지 모
 른다. 루트비히 2세가 시씨의 집이 바라보이는 호숫가에서 자살하
 지도 않았던 리하르트 바그너의 작품을 더욱 열심히 후원했을 것
 이다. 어머니 시씨의 영향으로 아버지 프란츠 요제프 황제와 반목하
 던 루트비히 황제가 황실 사냥터 미어머링^{Miemering}에서 연인 테리
 베헤라 남작부인과 동반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의 사촌 동생 미르다나트가 황태자 자리를 물려받지도 못했을 테
 니. 그가 시리아에서 암살되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일도 없
 었을 것이다. 천성 공주인 로미 슈나이더가 주연한 영화 <시씨> 3부
 작이 없다면 서운했겠다.

반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막시밀리안 황제가 알브레히트 뒤러<sup>Albrecht
 Dürer</sup> (르네상스 시대 독일 화가)를 후원하지 못했더라면, 알베르트나미
 술관^{Albertnamuseum}의 <토끼>, <기도하는 손>, <코를수도> 다른 데서 찾
 아야 한다. 화가의 고향 뉘른베르크에 있었을까? 또 황제 루트비히 2세
 가 모은 수많은 걸작이 빈 예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으로 올
 게 되지 않고 황제의 수도 프라하에 있을 것이다. 피터르 브뤼헬
^{Peter Bruegel}이 로마 콜로세움을 모델로 그린 <바람>과 롤랑드 지팡
 의 결혼식을 다룬 풍속화, 당대의 제단을 해학적으로 그린 <사육제
 와 사순절의 씨알>도 마찬가지다. 스산하지만 강렬한 SF 영화 <슬
 러릭스>와 <밀랑올라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설정 <눈 속의 사냥꾼>
 은 또 어디 가서 찾나.

흔흔한 카페 슈미들^{Cafe Schmid}도, 좀 전제하는 카페 컨트롤^{Cafe Control}도





복작거리는 카페 대열(Cafe Crowd)도 없으니 비엔나 카페 아인슈타너도 가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뿐일까, 지그문트 프로이트, 레프 트로츠키, 아르투르 슈니츨러같이 이 카페들에 즐겨 모이던 문화·예술·정치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마땅히 있고, 책 보고, 수다 떨 곳이 없다. 정신분석학도 태동하지 않고, 전 세계가 공산화되었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태백의 황 오디푸스가 일곱 뿔칠 골몰레스의 대령사일 일도, 한센도가 본단일 일도 없었겠지? 그러나 반이 지도소에서 자취를 감췄다면 말이다.

내 허무영랑한 상상이 반을 괴롭히는 사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보던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가 끝나간다. 오한 슈트라우스 2세 탄생 200주년을 맞은 올해의 지휘자는 나폴리 태생의 리카르도 무타다. 무타는 올해로 일곱 번째 이 행사에 초대되어, 생존 지휘자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년 음악회를 무관중으로 치렀을 때, 우리는 TV 카메라를 보고 꽤 길게 연설했다. "아무튼 시절을 음악으로 이겨내자"라는 그의 생애 인사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올해는 군더더기 없다. 그는 엘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가에서의 시작을 박수로 제지하는 관객의 의제적인 도발에 뒤로 돌아 단원과 함께 외쳤다. "해해 해해 밤이 왔네요!"(Prost Neujahr!)"

오래된 쓰레기 청중이 많아 구호의 맥이 끊기지, 무타는 뚫은덕담을 덧붙였다.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말로 올해 세 가지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첫째 평화***, 둘째 인류애***, 셋째 사랑***. 이 온 인류에게 깃들기를***. 다행히 내 짝은 이탈리아에 실력으로도 아이들을 지도도 반이 없나도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가에서)는 들어야한다. 꼭 빈의 칼렌베르크 잔치이 아니어도, 유유히 푸른 들잔을 차는 도나우를 다시 보고 싶다. 바이엔 헤겐스부르크에서,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스텔의 큐넨릭의 우주에서도 도나우만 보면 슈트라우스의 가락만 리듬과 선율이 떠오른다. 이 음악이든 생애의 희망을 충진하고도 남는다. 한층 퇴원 미미의 알코르가 작은 북으로 박자를 가한다. (리체츠키 행진곡) 빈이 없더라도 오스트리아가 북부 이탈리아를 지배할 일도 없었을 테니, 리체츠키 장군이 개선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리카르도 무타야 남부 나폴리 태생이니 (리체츠키 행진곡)을 서슴없이 지휘하자면, 북부 일리는 사뭇 클라우디오 아베나도 리피도 사이는 빈 필하모닉과 아무런 친해도 이 곡을 빠지 않는 한 지휘대에 설 수 없다. 오, 빈이 없었던면 가능했겠구나 참네, 빈이 없는데 월츠며 신년 음악회가 어디에 있나. 평생이 꼬이기 시작하니 멈출 때다. 늦었지만 나의 엉뚱한 상상을 담은 글을 끝까지 읽어준 분들께 인사를 전한다. "Prost Neujahr!"



1 오한 슈트라우스 2세와 아내 아델레의 조각. 1900년 모차르트와 (후 조반니) 굴리모로 지명한 빈 국립 오페라극장. 2 오한 슈트라우스 2세의 엘츠족이 피코르는 아틀라스의 도나우강, 4 엘베르타나 아델레의 도상 작품인 알리산드로 튀르키 이 도하는 선, 5 빈 필하모닉 악장악에 전사한 리카르도 무타의 (눈 속의 사랑) 6 그레고 웅세의 조각물, 1943년 시점에서 1947년에 이르러는 도하 열여섯을 갖추고 있는 빈 미술가회 공간.



글 정준호, 음악칼럼니스트, 글 손다기 레지다 방송 10여년 학과다시 글을 쓴다. (스트라빈스키, 마야코프스키 등) 해도 몇 장만 그는 요즘의 일상이 70년대를 돌아보고 말한다.

START



도시와 예술을 잇는 건축물

새롭게 등장한 문화예술 공간 내 곳을 소개한다.

예술을 품고 도시와 함께 호흡하는

이 건축물은 생동하는 유기체와 진배없다.



41만 1,000㎡의 알무미눔 제삼을
병에 담은 타워. 그 아래 최첨단 유리 건물은
도시 환경(기장)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그 옆엔 과잉아름다운 타워의 설계 공간.

루마 아틀

프랑스 남부 소도시 아틀은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마을로, 마원형경관(가장)을 비롯한 고대 로마 유적이 풍부한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수식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다. 바로 루마 아틀이다. 루마 아틀은 스위스 출신의 유명 건축사 마이 호프만이 이끄는 루마 재단에서 기획한 거대한 예술 복합 단지다. 약 1만㎡에 이르는 자연에 정원과 연못, 아티스트 레지던스, 갤러리, 카페 등을 조성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타워(Tower)라 불리는 건축물은 루마 아틀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중심부에 우뚝 솟은 은빛 건축물로, 프랭크 게리가 7년에 걸쳐 빚은 작품이다. 한 1,000㎡의 알무미눔 제삼을 벽돌갑자형 쌓아 올려 위를 향해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는 고즈넉한 마을에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여한다. 땅거미가 내려앉으면 건물은 더욱 빛을 발한다. 알무미눔 외벽은 하늘빛을 머금어 푸른 밤하늘을 연상시키고, 알무미눔 제삼 사이사이에 장식된 56개 유리 상자의 노란 조명은 하늘을 수놓은 별빛과 달빛처럼 반짝인다. 실제로 프랭크 게리는 이 타워를 구상할 당시 반 고흐의 작품이 빛나는 밤에를 떠올렸다고 한다. 한편 타워 자음부는 유리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로마 원형경기장을 모티브로 만든 것이다. 이외에도 도시의 헤리티지를 건축물에 담아내고자 프랑스스 지역에서 채취한 자재를 적극 활용했다. 이를테면 콘크리트 주변 커마 로그 습지에서 생산되는 소금 결정체로 타일을 만드는가 하면, 지중해 해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벽면을 장식했다. 아틀의 고귀한 유산을 건물 곳곳에 담아 역사를 되찾게 만드는 루마 아틀의 타워. 이를 유산의 응집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때다.



차이나 필하모닉 콘서트홀

중국 클래식 음악의 허브로 떠오르는 '차이나 필하모닉 콘서트홀'은 베이징 최초의 음악 공연 전문 홀이다. 2025년에 공개될 이곳은 차이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홈그라운드가 될 장소로, 세계적 건축 사무소 MAD 건축이 설계했다. 2만 6,000㎡ 규모의 이 건물은 음악 선율을 그리듯 유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순백의 커튼 혹은 벽역을 머물리게 만드는 반투명 파사드는 주변 연못 언덕과 울창한 녹지에 어울림 없이 녹아드는 동시에 주변 경관을 부드럽게 반영함으로써 마치 유기체처럼 사시각각 변화한다. 그리고 밤이 되면 건물 전체가 거대한 행판이 되어 도시를 은은하게 밝히는 역할을 한다.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은 공연장 내부까지 이어진다. 1,600석을 갖춘 메인 홀 천장은 연꽃 모양을 본뜬 흰색 음향 반사 패널을 설치해 홀 전체가 인공적인 꽃처럼 보이도록 했고, 88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오르간은 전형적인 원통형 대신 다양한 높이의 원통형으로 만들어 멀리서 봤을 때 대나무 숲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음악, 자연, 사람으로 연결된 차이나 필하모닉 콘서트홀은 공연장을 넘어 도심 속 오아시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1. 그 밤이 되면 거대한 행판이 되어 도시를 비추는 순백의 파사드. 그 연꽃 모양의 홀에 울창한 반사 패널이 울렁이는 메인 홀.



CHINA PHILHARMONIC





MUSIC CONCERT HALL





QUEENSLAND PERFORMING ARTS CENTRE

퀸즐랜드 공연 예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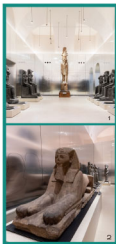
40년간 퀸즐랜드의 공연 문화를 책임진 퀸즐랜드 공연 예술 센터이자 QPAC가 새로운 공연장 NPAV(New Performing Arts Venue)를 추가한다. 1,500석 규모의 NPAV는 QPAC의 다섯 번째 공연장으로, 2025년 개업을 맞는다. 설계는 브리즈번 기반의 건축 사무소 블랙라이트 레아니와 노르웨이 건축 사무소 스노하타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들은 호주 원주민 작가

릴라 왓슨의 사에서 영감을 받아 사구장에 등장하는 '감의 잔물결', '자연의 흐름을 건축물로 구현했다. 외관만 봐도 그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217개의 단일 유리 패널로 이루어진 유려한 곡선의 파사드는 일렁이는 물결 같기도, 바람에 칠랑이는 실 같기도 하다. 유리 파사드 너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심부에 공연홀이 자리하고 있다. 홀은 콘크리트 상자 형태를 띠는데, 기

존 QPAC 건물과의 유기성을 강조한 설계다. 1985년에 개관한 QPAC는 브루클린 스타일의 건축물로 콘크리트 노골과 기하학적 계단식 구조가 특징이다. 이러한 건물의 중심이 되는 공연 홀에는 QPAC의 건축적 요소들이 식하고, 이를 감싸는 외피에는 유리 곡선으로 현대적 터치를 가미해 신구의 앙상블을 그려낸 NPAV가 자리한다. 옛것과 새것의 균형에 대한 깊은 고민을 짐작케 한다.

뮤세오 예지치오

1824년 이탈리아 토리노에 지어진 '뮤세오 예지치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이집트 문화 박물관이다. 이곳은 2024년에 개관 2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펼쳤다. 궁극적 목표는 공공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단순히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공간을 넘어 도시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 것이다. 가장 먼저 세 단장을 마친 공간은 2024년 공개된 '왕들의 갤러리(Gallery of the Kings)'로, 고대 이집트 도시에서 *Theban* (테스)의 옛 이름에서 발췌한 석상을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전시실이다. 공동 설계팀은 OMA 건축 사무소와 안드레아타 보카니 아키텍처는 유물이 발견된 카르나크 신전을 재현하겠다는 계획. 아직 고대 신전에서 배치하던 방식에 따라 석상 대부분 모서리나 측면에 전시했다. 벽면을 알루미늄 소재로 마감한 것 역시 카르나크 신전의 광활함을 표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알루미늄 재질은 전시품과 관람객의 움직임을 효율하게 반사해 공간이 끝없이 이어진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1, 2. 알루미늄 재질로 벽면을 마감해 공간과 현대적 이미지를 이한 '왕들의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3. 바로크 스타일의 현대적 요소를 강조한 에지오의 광장(Piazza Egitto). 시킨들의 형태로 디자인을 적용했다.

신뢰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시실을 다룬 물보이게 만드는 요소는 이처럼 참문이다. 뮤세오 예지치오는 17세기 이전은 바로크 양식의 건물에 자리하는데, 이베리노베이션을 통해 가려졌던 이치를 복원하고 거기에 참을 보았다. 이처럼 참은 바로크 건축의 미학과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여러 기능을 한다. 참을 통해 살아있는 햇살은 알루미늄 벽에 반사되어 고대 석상을 신성하게 비추는 조명이 되어주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에 따라 다양한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또 참은 박물관 밖에서도 전시품을 엿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행인들의 호기심과 움직임의 감각을 깨우는 매개체가 된다. 이는 박물관 안과 밖을 연결하고자 했던 이베리 프로젝트의 취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왕들의 갤러리'에 이어 안뜰과 6개의 새로운 공간이 2025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유구한 역사를 고고 동시대와 호흡하는 박물관으로 재탄생할 뮤세오 예지치오, 고대라 한다. 사람과 예술을 잇는 기교가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모은다. 글이정현



열정과 진심으로 빚어낸 음악

함 빈 연습실에는 날카로운 바람을 머금고
밀린 열정이 흘러들었다. 차갑고 고요했던 그 공간이 이내

청아한 반오 소리와 대금 선율이 가득 채워졌다.
소박한 합성선과 대금 연주자 인간성의 그 '소리' 밖에는
전통음악 외길, 치열한 시간이 깊어 내려앉아 있다.

HAM YOUNG-SUN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말고 한오백년 실재는 데 켜 성취요~" 애절한과 한탄, 쓸쓸함과 설움이 담긴 민요 〈한오백년〉을 즐겨 부른다는 소리꾼 함영선. 어릴 적부터 노래하기를 좋아한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한 소리꾼 인생이 33년 차에 접어들었다. 순천시립국악단 초대 예술감독이자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윤희 명창을 사사하면서 본격적인 경기민요 소리꾼의 길에 들어섰고, 2002년부터 경기사나워오키스트라에 입사해 현재 성악자석 단원이다. 민요는 서민층에서 구전되어 오던 소리로 민중과 사회 공물화의 정서가 있다. 서사적이고 극적으로 구성될 이야기로 노래로 부르는 판소리나 시조, 가곡 등에 가락을 붙인 경기와는 양식과 내용, 발성이 다르다. 그중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경기민요는 함고 부드러우며 흥겹고 경쾌하다. 서울과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불리던 민요지만 충청도 북부 일부와 강원도 지방 일부 민요도 포함되어 있다. 춘천이 고향인 함영선은 경기민요 중 일부인 강원 민요를 찾아 차자는 데 애착과 열의가 대단하다. 선악 자락이라는 제한적 환경에서 생겨난 강원소리는 간절하면서도 투박적이고 정겹다. 〈한오백년〉, 〈정선아리랑〉처럼 구슬프고 순박한 노랫말과 애절한 민중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가락이다. "2001년부터 이유리 선생님과 저를 포함한 제자들이 함께 강원도 각 지역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소리를 배우며 녹취[※]하고 제보[※]한 뒤 음원을 제작하고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현재 3집 음반까지 나왔고, 올해 강원소리의 중 두 곡을 새롭게 편곡해 음원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신 좋겠어요"

그렇게 강원소리의 열의를 갖고 있는 그녀는 소리꾼으로서 영광의 순간도 맞았다. 지난 해 11월 '제5회 전주전국민요경연대회'에서 경기 민요가 중 (부회) (예선)과 (본회) (본선)을 완창해 영남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13년 '전국순창국악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후 1년 만에 애절 반아나 도전할 줄에 이른 값진 결실이다. "한번도 쉽게 받은 상이 없어요. 특히 대통령상은 하늘이 내려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받기 어려웠고, 실력뿐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하죠. 자세한 34년 소리 공부에 대한 보상이자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실 일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대화에 참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프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악계에서는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인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라니까요. 그야말로 잘해도 본전, 못하면 망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긴장감을 놓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늘 갖고 있기에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한자리를 지켜온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차곡차곡 실현해 온 그녀에게 서양음악의 성악과 다른, 우리 전통 소리가 지닌 매력은 무엇인지 물었다. 함영선은 "최초애락이 담긴 인생사를 뛰어넘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이를 가락하게 절묘하고 풍부하며 다채롭게 표현해 내는 시김새들과 음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꾸며주는 연주 가법은 전통 선율을 감정과 분위기를 조절하며 고유한 맛을 더한다. "한국인의 정서에 한과 흥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옛 어르신들이 가본 일이 생김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아리랑을) 불렀다고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소리가 지닌 힘 아닐까요." 함영선은 우리 전통음악을 K-pop 같은 대중음악의 인기와 비교하거나 오래도록 잊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편하게 다가오고 듣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덜인양이 부르고 가려야 해요. 국악이 정말 우수한 음악임을 알린 무한 매력에 바

"한국인의 정서에 내재된 한과 흥, 그것이 우리 소리가 지닌 힘이라고 생각해요."

쳐 사탕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저도 국악 대중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경기사나워오키스트라에서 첫 주연을 맡았던 음악극 〈부루스나커 숲의 노래〉도, 그녀가 경기국악원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민요 연습실에서 알아차리는 일들과 단원들과의 에피소드를 담아 얼마 전 무대에 올린 민요 연습실 공연도 가져와 남겼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평생 소리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새롭고 산다는 자각이다. "얼마 전 대통령상 수상 기념으로 선보인 〈전차〉라는 공연이 21년 만에 무대에 올린 개인 발표회였어요. 하고 나니 더 욕심이 생겼더라고요. 아직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강원소리 음원으로 지속적으로 낼 예정이고, 경기사나워오키스트라가 지난해 음반을 제작한 경기 민요가 이어 올리는 경기민요를 냈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요. 경기사나워오키스트라 단원으로서, 또 대통령상 수상자로서 그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 보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 꽃잎 내 청춘 질로 뉘어 남은 반생을 어느 곳에든 꽃 불꽃이 ~" 연습실 안, 차갑고 밀린 겨울 햇살을 아무런 지장도 없는 한 손과 함께 소리를 이어 나가는 함영선. 그녀가 즐겨 부르는 〈한오백년〉은 그렇게 구슬프지만, 그녀의 소리꾼 인생은 사뭇 달라 보였다. 지금 이 순간, 아니 더 순간 몇 같은 청춘일지도.



이 코드를 통해
책 & 공연 자료를
유료로 제공받아
언어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금 선율에 달한 섬세한 진실

연진홍의 대금 인생은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국악 전공자인 부모 덕분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전통음악을 접한 그는 국립국악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대금을 처음 손에 잡았다. 이어 국립국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 2015년 경기사나위오케스트라에 입단했고, 지금은 대금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국악무르', '언제나 한국음악프로젝트' '대한민국대학악제' 등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이룬 그는 대금 수석상을 대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결과와 상관없이 준비하는 과정이 힘듦을 얻거니와,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난감했기만 되는 것도 불어넣을 줄을 연습했어, 구성원들이 대금 음악에 대한 고민과 조언을 주고 받았을 때로는 다투기도 했다고. 힘들게 준비한 만큼 정말 재밌고 보람 있었어요. 국립전통악기비라는 안정적인 정보를 끌어온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다. "아버지가 대금을 전공하셨어요. 역사자랑이*라고, 공자도 자식은 못 가르치는데 말이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저를 열심히 이끌어주셨어요. 연주자의 감성과 열정은 선천적인 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머니께 많이 물려받았다고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 음악 인생도 없었을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곡도 어릴 적 아버지가 한 기의 속에서 연주한다. 계간가락도드리, 장형도드리, 우조가락도드리의 3개 악곡으로 이루어진 현악(현악)은 모음곡 중 장형도드리를 유익히 거기년부터 노력처럼 불려주시곤 했다. 그런 아버지와 그 노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이상 제정해 들었고, 지금도 그음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인상 깊게 남아 있다. 아주 어린아이일 때부터 전통음악 가락이 익숙했고, 숙명처럼 대금이라는 악기를 손에 쥔 그가 말하는 대금의 특별함은 '정'에 있다. 갈대 속껍질로 만든 첩은 숨을 불어넣는 취구와 손가락을 막는 지공 사이에 있는 청공

에 불어 그 울림을 통해 소리를 만들어낸다. "여러 전통악기 가운데에서도 이 청 소리기 대금이 지난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예요. 플루트 같은 서양 악기와 다른 점이기도 하죠. 플루트는 주로 맑고 청아한 음색이 돋보인다면, 대금의 청의 울림을 조절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연주하는 곡에 따라 맑은 소리를 낼 수도, 강하고 거친 음색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는 이러한 대금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곡으로 '청성곡'을 꼽았다. 대금 독주곡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자 여러 미디어에서 배경음악으로도 종종 쓰이는 대표적인 악곡이다. 연진홍은 이러한 소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가 대금 연주자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악기 잘 다루는 마음'이다. "대금은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힘듦이 거예요. 취미로 단소를 불어 본 분이 많은데, 그에 비해 몇 배는 어렵죠. 전공자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금 소리가 통에서 시작했음에도 막상 넣을 수 없는 선을 바라보는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악으로 생각하면 대금은 소리를 잘 낼 수 있어도 대금이 지난 매력의 많은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소리를 내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렇게 대금의 매력에 매몰되는 거죠. 결국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행선 단원이 "아들이 인간을 같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단정하고 성실한 태도로 음악을 대하는 그도 색다른 음악적 열정(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 2021년 경기사나위오케스트라가 초연한 연창제 뮤지컬 〈금악*〉에서다. 이 공연은 참신한 소재와 국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배우와 악연이 더해져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보통 뮤지컬 공연을 할 때 오케스트라는 피트에서 연주하는데, 저는 소리장터라는

악합로 무대 위에 섰어요. 악기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하면서 춤과 노래, 연기도 한 거죠." 그 경험이 앞으로 무대 다시 못할 것 같은 걸 알함으로 남아 있지만, 그는 사실 무리 전통음악을 통사디의 다양한 예술 장르와 융합하는 창의적 시도를 하고 있는 경기사나위오케스트라의 노력을 늘 응원하며 동참하고 있다. 확장된 다양성이 곧 국악의 차원을 넓히고 더 많은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2023년에 <다인소스 로켓>이라는 공연을 했어요. 사나위적 삶을 산 예술가 백남준을 오마주하는 곡으로, 한 악곡을 1시간에 걸친 많은 시간 동안 연주했죠. 전통 음악만 아니라 현대무용, 서양악기, 전자음악, 영상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를 하나로 융합한 기념비적인 공연이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은 아니었지만 생각하면, 경기사나위오케스트라의 창의성이 잘 드러난 무대였어요. 또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2024 시즌 레퍼토리 공연이었던 <12 작곡가와 같은 시도도 많이 지켜야 합니다. 공연 레퍼토리의 확장이 다양한 관객층을 아우르는 길로가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연주할 때마다 피안다아임을 준비하는 세프의 마음으로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전달하고 싶다는 연진홍. "피안다아임은 세프가 표현하고자 하는 요리 안에 대담하게 하나하나 살아 있었어요. 다시를 받은 손님이나 통할 수밖에 없죠. 살림이 없으면 마치 다 알아서 지킬 수 있을 거고, 재료는 당장에 맞는 요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리의 대담 앞에서 세프의 정성과 마음이 느껴져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정성과 마음이 담긴 제 음악이 관객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 섬세한 진심이 지난 10년 동안과, 앞으로 이어질 무대와 그다음 무대에서도 오롯이 전해질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윤이정주 사진 박수진

“대금 연주는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정성과 마음이 담긴 제 음악이 관객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AHN GUN-YONG

확장하는 클래식 감상법

고전음악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는
네 권의 책과 네 개의 유튜브 채널



□ □ 《대 클래식》, 김희정, 중앙북스
장영준, 조수미, 손성욱, 조성진,
임원찬 등 동시대 클래식 음악가
16인의 음악 스타일을 심도 있게
분석한 책이다. 저자가 이 음악가들
주목하는 이유, 그들의 연주가
천사를 받은 이후 음악을 깊이 탐구해
보고 싶었던 이 책이 찬양한 해설자가
되어줄 것이다. 또 2024년 그래미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임원찬의
(쇼팽 에튀드) 앨범 리뷰와 안재홍 전문도
수특히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



□ □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김주영, 책커스
피아니스트가 바라보는 피아니스트는
어떤 모습일까. 서른대 학교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연주 박사 학위를 받은
피아니스트 김주영이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10인의 음악가 세계와
대화를 같이 있게 되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쇼스타코비치,
클로드 드뷔시 등을 음악사를 통해
계정할 수 있는 이 책은 저자의 깊은
통찰력을 통해 그들의 음악이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클래식타렉스 @classicharbooks
재미와 교양을 겸비한 채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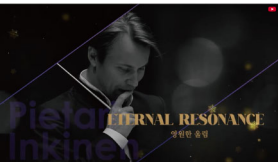
테이벌 수현국, 연주리뷰 등 다양한 콘텐츠로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아우른다.
이 중 '완전히 새로운 클래식 Review'는 작곡을
전공한 문명자의 전문 지식을 엿볼 수 있는
콘텐츠로, '엘리제를 위하여'의 '속 베토벤의 천재성',
'파가니니 카프리스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등
클래식을 부르는 흥미로운 주제가 가득하다.



대분류해석 러브콜해석

피아노를 전공한 박종욱 PD가 분석한 채널이다.
작곡가의 삶, 작품의 배경, 감상 포인트를 1분 내외의 쇼츠 영상으로
물어 물어 주목받았다. 간판 콘텐츠는 '나 인생의 클래식',
이 시리즈는 안재홍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클래식을 곡을
소개하고 거기에 얹힌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콘텐츠로, 저자가 금년사와 베히트
아니온서 김 파파노 연주자 김경현의 안재홍과 큰 호응을 얻었다.





KBS교향악단 @KBS_Symphony_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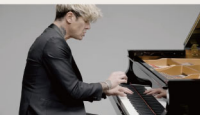
이사이 오케스트라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KBS교향악단은 유튜브를 통해 클래식계 이단아로 떠올랐다.

이 채널의 매력은 유쾌하고 기발한 편집에 있다.

유명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클래식 음악에 맞춰 편집한 영상들이 구독자를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처럼, 드라마 <레조 왕건>에서 궁예의 양녀서 '누가 거침 소리를 내는가?'와 <비밀의 화원>을 엮어놓은 영상을 만드는 식이다.

이 외에도 관객들이 접하기 힘든 무대 뒤 모습이나 공연 예시소드를 공개해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모 @TOWMOO

클래식과 예능을 결합한 신채널 콘텐츠로 구독자 76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누적 조회수가 가장 높은 콘텐츠는 시라노 하이토의 클래식+예능 영상으로 조회수 2,000만을 훌쩍 넘겼다.

블러인드 인시 경이츠를 가졌한 자라에서 3명의 교수가 시라노 하이토의 연주動画を 평가하는 내용인데, 재미와 함께 시라노의 연주가 주는 감동까지 더해져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외에도 프로 연주자와 음대생의 연주 비록, 세계적 음악가에게 일대일 레슨을 받는 음악경쟁 등 참신한 콘텐츠가 많다.



□ <영향에 반한 메로벤을 만나라>

한우성, 유노라이트
초음직성 사절 <영향> 교향곡을 듣고
메로벤에 빠진 한우성 음악감독이
메로벤의 생애를 생동감 넘치게 돌아본다.
<메로벤을 만나라>는 이우주부터
가치높은 음악의 황금 곡,
'나를 되찾아보게 하는 곡',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곡',
'진한 애정이 느껴지는 곡'까지
총 다섯 주제를 다룬 세로본의
주요 작품과 그 속에 담긴 고서를
상사하게 풀어놓는다.



□ <매일 하나 클래식 100>

한우성-김소라 외 4명, 문예춘추사
고고 현대한 클래식 음악의 세계,
어떤 곡을 어디서부터 들어야 할지
악곡의 아름다움에 흥미로운 접근이
되어놓았다. 100개의 연주 영상과
이름집을 소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100명의 클래식 구경꾼이 있다.
하루에 한 편씩 100일 동안 천천히
음악하며 읽어보길 권한다.
책은 펼쳐는 순간 시작되는
100일의 여정 문예춘추사 음악가에게
자신의 취미를 알아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창의적인 융합으로 보이는
예술이 주는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

Creative Convergence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음악과 미술의 융합

"나는 사물을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그린다" 이 표현만으로도 가져온 존재감을 띠는 파블로 피카소가 남긴 말이다. 점, 선, 면과 색으로 이루어진 일가집 같은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자면 그만의 소소한 사유부터 당시 교류했던 인물, 영향받은 주제, 사대적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탐구했던 피카소의 삶을 재조명하는 공연이 프랑스 파리 라 생 유지칼(La Seine Musicale)에서 오는 3월 1일 전 세계 초연된다. 실과 예술의 융합, 미술과 음악의 융합을 표방하는 이번 공연은 피카소 사후 51년을 기념해 제작되었다. 주제 속인 '피카소 심포니'는 피카소의 삶을 구간별로 나눠 그 시기에 있었던 대표작을 소개하고, 이와 어울리는 음악을 매칭해 실연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 '피카소 심포니'에서는 피카소의 삶을 총 여덟 시기로 나누었다. 이탈리아의 대화가 리파렐로의 뒤를 잇는 신봉으로 불린 유년 시절(1881-1901년), 절친한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우울감에 빠져 있던 형식 시대(1901-1905년),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기 시작한 장맛길 시대(1905-1906년), 물 세잔에게서 영감을 받아 다시점법을 실험했던 큐비즘 시대(1906-1916년), 이탈리아를 방문한 후 다시 고전적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 신고전주의 시대(1917-1925년), 초현실주의자들과 그들 전시를 열기도 했던 초현실주의 시대(1925-1937년), 크고 작은 전쟁이 발발했던 시대에 앞장서서 정치적 목소리를 냈던 시기(1937-1945년), 작품 활동을 매우 왕성하게 했던 말년(1945-1973년)으로 구분된다.

이 중 피카소의 큐비즘 시대와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매칭한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러시아 출신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역시 사대를 앞서온 인물이다. 그는 러시아 발레단의 의뢰를 받아 기존의 조성과 작사를 피라한 발레 음악 《봄의 제전》을 작곡했다. 1913년 파리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음악뿐 아니라 기괴한 안무를 선보였는데, 고대의 인간 공방 의식이라는 뽕소환 주제에 거부감을 느껴 소동을 피우는 관객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극장으로 출동하기도 했던 20세기 초의 문제작이다.

실제로 1920년, 러시아 발레단이 의뢰한 작품 《봄의 제전》에서 피카소와 스트라빈스키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봄의 제전》은 16세기부터 유행한 이탈리아 전통 민행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춘향전》 속 약살사리꾼 인물 빌자 같은 인물이다.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무용수들의 의상과 무대 디자인을 맡았다. 이처럼



럼 막대한 소재. 18세기 작곡가 페르골레시의 음악에 현대성을 가미한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큐비즘을 실험하던 시기를 지나 다시 고전적 회풍을 추구했던 피카소의 미술까지 합쳐진 이 작품은 당시 전쟁으로 지쳐 있던 대중의 빈곤한 마음을 채워주었다. 후에 러시아 발레단 단장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는 이 작품을 두고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었다. 주제, 음악, 예술가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작이었다"라고 평했다.

영감의 생에서 부자연히 길어올린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인 피카소. 그는 92세까지 장수하여 화화뿐 아니라 드로잉, 무대 디자인, 의상 디자인, 만화, 일러스트, 조각, 도자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작업하며 평생 6만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생애에 대한 애정, 일에 대한 열정은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출 어수현, 예술의전당 언론홍보·아카데미·전시·공연 자, '이러면 안돼' 공연 제작사, 현재artTV (이러면 안돼)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음악·미술·영화·문학을 전하고 있다. 2022년 올해식업소스 그림 그리기는 바 이올라·스피클을 출한다.



창작의 새로운 조력자, AI

예술과 기술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듯하지만, 둘 다 인간에게 끊임없이 도전적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닮았다. 또 하나는 결과가 아니라 답을 찾는 과정에서 더 풍부하게 완성된다는 점도 같다. 우리는 질문과 탐구, 페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역사를 만들고 상상력의 경계를 넓어왔다. 그리고 이제 예술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AI라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다.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막연한 불안은 누구나 갖고 있다.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 중인 AI는 이제 창의성까지 발현하여 그림과 소설, 시나리오 등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간단한 작업에 AI를 활용하며, 다뤄지지 미흡하지만 쓸 만하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정말 AI가 예술가의 자리까지 빼앗는 날이 올까? 사실, 예술은 늘 도구와 함께 진화해 왔다. 노동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는 AI가 전문가를 대체하기보다 전문성을 보완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 말한다. 일례로 챗GPT는 유능한 작가가 더 빨리 글을 쓰게 하고, 덜 유능한 작가가 수월하게 작업하도록 돕는다. 즉 AI를 잘 활용하면 전문가는 더 심층한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는 창작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예술보다 더 빠른 기술의 침범이 당혹스럽지만, 언제나 인간은 질

문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기술을 다시 도
구로 삼아왔다. AI 역시 창작의 본질을 다시
묻게 만드는 전환점이다.

현대미술에서는 예술가가 얼마나 실패하면
그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예술가의
독창적 시각과 표현, 통찰력 있는 해석과 재
구성 능력이다. 예술은 무에서 창조되지 않
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태어나기 때문
이다. 유전자 조작 미생물에 관한 특서를 써
용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미국 대법관 워
런 버거가 말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
다(There is nothing under the sun)'라는 문장은 예술
에도 적용된다. 예술가의 '데이터'적 능력이
중요한 시대다.

A는 이미 예술가가 세계를 해석하고 재구성
하는 데에 유용한 조력자다. AI를 활용하는
예술가로 알려진 레미카니들은 최근 국내

AI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더 크고 다양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서 직접 개발한 자연 특화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 'LNM'으로 제작한 작품을 전시했고,
이런 점은 AI와 게임 엔진을 이용해 인간의
존재 의미를 묻는 시뮬레이션 작품을 펼칠
파레노는 전시 전체를 컨트롤하는 AI 환경을
선보였다. 국내에도 AI를 적극 활용하는 작
가가 많다. 노상호는 AI와 오류를 활용해 최
화로 재구성하고, 신교명은 직접 개발한 AI
화가 '미일오'와 함께 활동한다. 또 노건애는
AI 로봇을 작업 매체로 삼고 있다.
AI 도입은 예술가들에게 작업 시간 단축은
물론 방대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었다. 개인 창작자들이 경
제적·인적 자원을 극복하고 대규모 작업을
선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예술가의

정의와 예술의 범위, 경쟁 구도가 재편될 것
이다. 한편 재료의 물성이나 물의 감각에 집
중적으로 탐색하는 등 AI가 넘볼 수 없는 예
술 영역이 더 발전할 수도 있다. 때씩 예술가
들이 말한 '새로운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AI가 예술의 강력한 파트너가 될지
라도 창작의 중심은 여전히 인간이다. 현대
미술은 무엇보다 인간의 감각과 해석을 요
구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새로운
르네상스 앞에서 예술가들은 시라는 새로운
도구에 대한 탐색과 확신을 물론 각자의 철
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윤리적 고민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문물 여는 도구를 손에 쥐고있다. 문물 열린 더
적극적인 질문이 펼쳐질 테다. 그것은 우리
가 어떻게 하면 더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
는지에 관한 것이다.

윤건영_미술비평가, 비평가 겸집필위원이며 동시대미
술의 대안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의 경계 확
장을 탐험하고 있다. 2004년 초신호로 신춘문예 미술
부문 부문 당선되었다.



GAUSS STORY

Zooming

직원과 고객을 위한 사명감
인간 사슬망이 순환·전송될 차장과
제작하고 안전한
경가어트먼트를 위한 노력

GOAC News

경가어트먼트의 새로운 소식

Calendar

2월과3월의 공연 일정

Epilogue
관객 여러분께

직원과 관객을 위한 사망감

경기아트센터 안전시설팀의 이승환전호철 차장은 입사한
입수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과 관람 환경,
경기도예술단원을 비롯한 직원과 관객의 편의를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무대와 객석, 공연장 안팎 어느 곳 하나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다.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2008년 6월
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안전시설팀에서 건
축과 조경, 장애인 시설, 색면 관리, 건축물
법정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 2017년 7월에 입사했으며, 중앙 냉난방,
공조기, 배관 덕트, 보일러 같은 기계 설비와
소방시설 화재 예방 관리 등 여러 업무를 진
행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을까
요?**

2018년 대·소극장 시설부터 로비, 연
습실, 지하 주차장 등 경기아트센터 시설 곳
곳을 꾸준히 개선하고 보수하고 있어요. 특히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진행한 장애인 편
의 시설 개선 공사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
닥의 접지불통, 자동문, 전동 화장실과 이동
식 리프트, 장애인 좌석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개선했어요. 국내 그 어떤 공연장보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자부합니다.

2022 입사 후 회사 분위기에 미처 적응하지 못
했을 때부터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진행한 기계설비 냉난방 교체 공사 사업에 참여
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덕분에 업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약 180대의 계
별 냉난방 설비 교체 및 유지 관리, 배관 교체,
소방 설비 유지 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
어요. 그중에서도 경기도와 함께 진행한 노후
설비 개선 공사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무엇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2 개선 공사는 아니라 긴급 보수 공사를 진
행할 때 관련 업무를 미리 공유해 신속하게
대처하곤 하죠.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공사도 회
소 회의 기간과 금액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
에 협의하는 등 근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2 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설 개보수
관련 공사를 건축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진
행하기 때문에 함께 손발을 맞출 일이 많아
요. 공평별로 사전 회의 후 계속 체크하고 조
율하면서 준공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슬현 차
장이 제 사수였던 터라 호흡이 잘 맞아요. 개
인적으로도 칭찬하고요.

**가장 최근 리뉴얼한 공간은 어디인가요? 예
를 많이 쓰셨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약
두 달에 걸쳐 노후된 대극장 지하 개인 연습

실과 소극장 지하 계단 복속 시설을 개선한 공
사입니다. 근무 환경 향상은 물론 이용객의 편
의를 위해 진행했습니다. 소극장 연습실도 개
선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도색, 바닥 샌딩으
로 그쳤는데, 그 점이 아쉬웁니다.

2022 건축 파츠에 도움이 되고자 소방 유도등
과 소화기 기립함 같은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썼어요. 전정형 에어컨으로 깔끔하게 시공하
고 공조기, 급배기 덕트도 전체적으로 교체
했고요. 덕분에 지하층이 쾌한 환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방 및 기계
설비 부분은 화재 예방 등 안전 문제로 법규
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미관에 비
중을 많이 둘 수 없다는 것이죠.

**공사나 관리 시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은 무
엇인가요?** 2022 객석과 무대, 로비, 화장실, 이
외 공간 등이 모두 관객의 통행에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공연 전
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 소방 및 기계 설비에 어느 한 부분에 적
은 문제가 생기면 공연과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
이 없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체계를, 설비



지하층의 대극장 공연실과 복도. 새로 시공된
이런의 노후한 분위기에 비해 밝고 환한 색으로 쾌적하게 변화했다.



의 정상 작동 및 상태 확인. 매달 전문 업체 방문과 6개월에 1회 정기 점검. 자위소방조 작과 교육 및 훈련까지. 수시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안전시설팀 입장에서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 경기아르센터 대소극장은 34년 전 완공된 건물로, 냉난방 시설이 천장에 설치된 상황식인 데 비해 요즘 지은 공연장은 하향식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공연장 특성상 승고가 높기 때문에 상황식이

효율적인 일거든요. 개인적으로 무대 설비부터 객석 의자 등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 경기아르센터는 일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오케스트라 전용 콘서트홀과 달리 오케스트라부터 연극, 무용 공연 등이 다양하게 열리는 다목적홀이기 때문에 개선 및 보수가 수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관객이 오케전에

지은 객석 내부만 보고 낙후됐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좁은 객석 사이를 넓고 쾌적하게 개선하려면 적어도 1년 넘는 시간과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공사 기간에는 공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기 더 어렵죠. 언젠가는 계획을 세워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단시간에 이루어지긴 힘들겠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이장주 사진 박우진(왼쪽)



안전시설팀에서 15년 가까이 호출을 맞추고 있는 윤서, 전호출(왼쪽) 차장과 이승환 차장.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 시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2024년 제4회 창작희곡 공모전)

대상 및 우수상 선정

경기아트센터-경기도극단이 주최한 2024년 제4회 창작희곡 공모전에 조은주 작가의 <하늘> 비오르는 삶과 황수아 작가의 <세 개의 화형진 악막이> 각각 대상과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2024년 제4회 창작희곡 공모전은 경기도를 주제로 우수 창작 희곡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24년 8월부터 공모를 안내했고,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기성 작가뿐 아니라 신인 및 예비 극작가까지 자격 제한 없이 출품한 이번 공모전은 많은 기성 동안 총 68편의 작품이 지원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주최 측은 2차 불리안드 심사까지 거쳐 정도로 당선작 선정에 신중을 기울였다. 대상을 차지 조은주 작가의 <하늘> 비오르는 삶은 '동시대적 직접한 주제 의식을 지닌 작품', '보편성과 실속함을 모두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황수아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위아와 불확실성 사이를 적절하게 넘나들고 있다'는 것을 긍정으로 꼽았다. 황수아 작가의 <세 개의 화형진 악막이>는 '나체성을 다룬 기존 작품들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는

제4회 경기아트센터-경기도극단 '창작 장막희곡 공모전'

일시 : 2024년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경기아트센터 회의실



공정적인 평을 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 일원은 '동사체'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연극이 참에 더 집중하게 한다'며 두 작품을 선정 이유를 추가적으로 밝혔다. 대상에는

1,000만 원, 우수상에는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 두 작품은 2025년 6월 남독극으로 먼저 관객과 만나고, 이후 2026년에 정식 공연으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GGAC NEWS

경기아트센터의 최근 소식을 전한다.



관객과 더 가까워진다! 경기아트센터 SNS 캐릭터 '깍궁이' 데뷔
2024년 12월 13일, 경기아트센터를 대표하는 캐릭터 '깍궁이'를 주요 SNS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깍궁이는 공연과 전시 소식을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경기아트센터의 새로운 SNS 캐릭터다. 경기아트센터는 관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로고와 C를 활용해 기존의 정체성을 깍궁이에 담았다. '깍궁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깍'은 공연을 즐기는 관객의 즐거운 현호성을, '궁'은 아티스트를 위한 꿈의 통로인 모양을 뜻한다. 즉 깍궁이는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꿈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소개하고, 관객의 현호성이 끊이지 않는 경기아트센터를 만들어가기겠다는 의지를 대변한다. 경기아트센터 정체성은 '깍궁이'가 경기아트센터와 도민을 문화적으로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깍' SNS 캐릭터가 도민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아트센터의 새 SNS 캐릭터 '깍궁이'는 네이버 OGG 마켓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창작극의 오락 발견

연출 김광복

작가 이마경 부인의 시대 & 박강록 우체국에 김영희씨

부인의 시대 이은 강아질 임마질 정동선 특제된
우체국에 김영희씨 황상연 이슬비 노민학 어홍우 문재용
김지희 안주하 권승록 김성대 이진혁



- 이마경 작 -

부인의 시대

- 박강록 작 -

우체국에 김영희씨



2025. 3. 20

평일(목~금)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025. 3. 23

주말(토~일) 16:00

도리어하고 한방지 무대디자인 박성봉 조연디자인 원창기 세운도디자인 황재형 음악 홍남희 의상디자인 유미정 소품디자인 최윤정 분장디자인 이윤연 무대감독 이경환
지휘감독 김문장 조무석 이주연 기세일 노윤영

티켓 30,000원 54,000원 20,000원 (예매 인터넷 티켓 1544-2344 전화 공연문의 경기도극단 031-230-3302~4
공연인원 초등학교생(12세 이상) 20,000원 이하의 어린이는
관객티켓 150분 UNDO(오프디안) 15분 포함(1인 - 1인 40000원/2인 - 40000원 20000원)

FEB

MAR

CALENDAR

S	M	T	W	T	F	S
						1
2	3	4	5			8
						경기아트센터 오케스트라 2009 신인음악회 (2차예선준선) 18:00 경기아트센터 극작당
9	10	11	12	13	14	15
					2009 Classic of My Playlist I (Valentine Dream)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동사의 생일 파티 제2탄: 발동공주 09:00) - 수월 14:00,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16	17	18	19	20	21	22
(동사의 생일 파티 제2탄: 발동공주 09:00) - 수월 11:00, 14: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23	24	25	26	27	28	
						(장학화곡의 흥간· 부인의 시대 & 무제에게 감명(제2)) 18: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S	M	T
2	3	4
9	10	11
		
16	17	18
에세이 부지깽 (부지깽의 대립)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3	24	25
30	31	

QR 코드를 통해
 공연 정보를
 확인하세요



예술과 만나다

〈예술과만나다〉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양자,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강가아트센터의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숨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학예술의 가장 핫한 이슈를 만나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강가아트센터 예술과만나다』

강가아트센터 대표 매거진 〈예술과만나다〉 콘텐츠로 프로그래밍 소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GGAC.OFFICIAL

강가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감 넘치는 공연 생방송을
관합니다. 풍성한 라이브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GGAC.OFFICIAL

강가아트센터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강가아트센터에서 다양한
문학예술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TUBE.COM/막1TV 강가아트센터

무라 실험예술, 강가아트센터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내손전에서 펼쳐지는 열작 공연 실험, 브이로그, 인터뷰 등
다양한 현장 소식과 공연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M.POST.NAVER.COM/GGAC

저렴 가격으로 미리 전하기 못했어! 아이를 앉혔습니다.
다양한 글과 사진, 포스트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W	T	F	S
		1	
		7	8
		〈아마데우스〉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아마데우스〉 17:00 강가아트센터 대극장
12	B		Sat 15
19	20	21	22
	〈열악화재의 열악· 부인의 시대 & 우애극에 집중하다〉 19:30 강가아트센터 소극장	〈열악화재의 열악· 부인의 시대 & 우애극에 집중하다〉 19:30 강가아트센터 소극장	〈열악화재의 열악· 부인의 시대 & 우애극에 집중하다〉 19:30 강가아트센터 소극장
26	27	28	29
		〈장조(장조) 50:48〉 19:30, 19:00 강가아트센터 소극장	〈장조(장조) 50:48〉 19:30, 19:00 강가아트센터 소극장
		〈제3천 콘서트〉 시간 미정 강가아트센터 대극장	〈제3천 콘서트〉 시간 미정 강가아트센터 대극장

☎예약문의 02-250-6461 / 3월말 15:00~19:00 우정 10:00~17:00

☎강가 공연 02-250-6461 / 3월말 15:00~19:00 우정 10:00~17:00

☎1월 공연 02-250-6461 / 02-250-6461 - 강가아트센터 02-250-6461-2-4

☎강가아트센터 02-250-6461 / 02-250-6461-2-4

☎강가아트센터 02-250-6461 / 02-250-6461-2-4

〈예술과만나다〉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강가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실험, 인터뷰,
뉴스-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유할 수 있는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메일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magazine@ggac.or.kr



봄을 기다리는 마음

•

영하의 낮은 기온이 이어지던 1월 초 어느 날, 경기국악원을 찾았다. 뚝한 한국민속촌에서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앞에 자리한 경기국악원은 그날 공연 일정이 없던 터라 홀로 간스킵지 않은 겨울 산세의 문치가 문전히 머물러 있었다. 꽃피는 봄이 되면 산책하러 들러도 좋겠다는 마음이 한 줄곧 피어올랐다. 이곳에서 각각 29년, 10년의 시간을 보낸 경기시나리오게스트와 합영신 생악 차세대원과 안건출대금수석 단원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경기국악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국악당 잔디마당에서 야외 공연이 열리는 날이면 서서 볼 자리도 없을 만큼 수많은 관객이 찾는다. 봄이면 너른 국악원 마당에 흐르는 계류의 풍경과 소리를 배경으로 대체적해진 공연장 곳곳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산 아래 안전하게 자리한 경기국악원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며 여유롭고 온온한 기운이 깃든 우리 음악을 들을 수 있기를, 그렇게 봄을 기다려본다. 윤이형주

신년음악회

경계를 물들이다

나라데이션-G

새날을 양동훈 작곡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김희조 작곡

'달하노피곰' 주제에 의한 하프협주곡

황병기 작곡·손다혜 편곡

공무도하가·어기여디어라·언젠가는

이상은 작곡

금잔디 김대성 작곡

2025. 2. 8. ㅉ 16:00 경기국악원 국악당

예술감독·지휘 김성진 연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협연 김영길 아쟁 | 황세희 하프리스트 | 이상은 싱어송라이터

티켓 전석 30,000원 예매 인터파크티켓 1544-2344 공연문의 031-289-6472-5 관람연령 5세(2020년 12월 31일 이전)

